



희망의 일출 영주십경 중 하나인, 성산일출봉의 해가 떠오르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들의 희망들도 아름답게 떠오를 것이다.

송인혁 사진작가(제주시청 공보실 근무)

새해 아침에

“없는 게 메리트라네”

여성 2인조 인디밴드 ‘옥상달빛’의 노래 ‘없는 게 메리트’는 청년들의 절망적인 현실을 그렸다. 요즘 청년들은 잃을 게 없다.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신조어 ‘삼포(三抛)세대’가 여실히 보여준다. 삼포세대는 취업난, 불안정한 일자리, 치솟는 집값,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의 지출 등의 사회적 문제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층 세대를 말한다. 그래서 삼포 청년세대들은 먹고 살기 바쁘다.

올해는 특히 우리 사회가 혼란으로 뒤덮였던 해였다. 대통령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정쟁’으로 해를 시작해 ‘저항’으로 막을 내렸다.

그렇게 앞친데 달친 격으로, 안녕하지 못한

세상에서 살던 청년들은 자보를 붙이기 시작했다. 자신의 불안과 사회문제에 대해 타인과 소통하고 있다. 자신의 앞가림하느라 별 탈 없어 보였던 세상이 사실 모순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비단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청소년 노동자 등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안녕치 못한 응답소리가 들려온다.

대학교수들도 올해를 사자성어 ‘도행역시(倒行逆施)’로 표현했다. 이는 잘못된 길을 고집하거나 시대착오적으로 나쁜 일을 꾀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도행역시를 추천한 옥영수 중앙대 교수는 “새정부의 출범 후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역사의 수레바퀴를 퇴행적으로 후퇴시키는 정책·인사가 고집되는 것을 염려하고 경계한다”며 추천 이유를 밝혔다. 좀 더 비전있는 미래 지향적 가치를 주문하는 국민적 여망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과거회귀적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침묵하고 불통을 고집하는 태도에 대한 지적이다.

다시 노래 얘기로 돌아가보자. 노래는 아무 것도 없는 자신을 자조(自嘲)하지 않는다. 노래는 오히려 “있는 게 짝없음”이라며 현실을 긍정한다. 또 “나는 가진 게 없어 손해 볼 게 없다네. 난, 정말 괜찮아요. 그리 슬프진 않아요”라고 말한다. 이는 청년들의 자조적인 상황을 “무언가 얻을 일단 남았다”며 긍정적으로 승화해 노래하고 있다.

올해를 마감하면서 여러 언론들이 올해의 사건사고를 정리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십중팔구 우리들을 혼란과 좌절에 빠트리게 했던 뉴스 투성이다.

하지만 좌절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찾아보면 우리 사회와 대학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던 좋은 소식 하나는 있다.

더 이상의 좌절은 무의미하다. 한동안 각종 사회문제와 취업, 학점 등의 개인적인 고민으로 우리는 꽤 오랫동안 ‘안녕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좌절하는 대신 대학인 스스로가 안녕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행동에 옮기는 게 필요하겠다. 대학인 스스로 희망을 가져야 한다. 그래도 막연한 희망 하나쯤은 품고 있어야 한다.

(전략)/버릴 것은 다 버리고/그래도 가슴에 끝까지 부여안고 있는 게 단 하나 있다면/그것은 해질녘 순댓국집에 들러 술국을 시켜놓고/소주잔을 나누는 희망의 푸른 그림자다/희망의 그림자는 울지 않는다/아무도 함께 가지 않아도 스스로 길이 되어 걸어간다/인간이 저지르는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은/희망을 잃는 것이라고/(후략)

-경호승, 『희망의 그림자』

김명지 편집국장

신년 축시

말발굽 소리 있어라

- 갑오년 새 아침에 부쳐

양 영 길

갑오년 새 아침에

청사(靑史)의 바람 가르며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 들려라

역사의 푸른 강물 위를

진리 정의 창조의 갈기 휘날리며

거친 숨소리로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 들려라

세기는 부른다, 제대 건아야

오! 우리는 진리의 탐구자

우리들의 마당에

활화산 같은 말발굽 소리 있어라

역사의 뜨거운 가슴 한복판을 달리고 달리자

우리의 갈 길은 여기에 있다

오~ 우리는 역사의 건설자

태풍보다 더 포효하는 말울음 소리 함께 있어라

한라산 오백장군 기개로 태평양 파도 몰고 가듯

역사의 바람을 가르며 달려가는

제주 청철마의 말울음 소리 들려라

갑오년 새해 새 아침

제대 건아의 세기 마당에

말발굽 소리 있어라

바다보다 더 푸른 말울음 소리 있어라

△ 199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현재 중문중 교장

△ 시집 『바람의 땅에서』, 『가람이 사이로 굽어보는 세상』,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The World Comes to Jeju, and Jeju Goes to the World

‘행복한 도민, 희망찬 제주’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제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세계 최대규모의 섬관광지가 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백만명, 전체 관광객 1천만명 돌파!

인구는 최근 3년간 2만5천여명이 증가하여 인구 60만 시대 개막!
4·3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 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 예정!
그 무엇보다 바꿀수 없는 값진 자부심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새해는 제주미래100년의 다리를 놓는 소중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2014년 청마의 해, 제주의 푸르른 꿈을 안고 조랑말처럼 달려갑시다.

도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4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우리는 공동운명체... 거친 파도 헤쳐가야

총장 신년사

존경하는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희망찬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올해 개교 62주년을 맞은 우리대학교가 명품 대학으로 더 우뚝서는 변영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대학은 계속되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힘입어 적지않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취업률에서 우리 대학은 거점국립대 2위,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22개 국립대학중 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실적은 제주지역의 열악한 산업구조, 학생들의 취업 눈높이에 맞지 않는 ‘미스 매치’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일궈낸 것이어서 그 가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대학의 교육여건 및 성과를 평가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선 6년 연속 정부의 지원대상 대학으로 선정돼 다른 대학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으로도 뽑혀 우리대학 졸업생들이 해외에 교사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1차년도 평가에선 ‘호남·제주권 1등’, ‘전국 2등’을 기록해 중앙언론으로부터 ‘지방편견을 깨뜨린 값진 성과’라고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BK플러스 21사업’ 지원대학에 선정돼 7년간 108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고 ‘정부지원 그린 캠퍼스 대학 선정’, ‘정부 수산백신연구센터 주관기관 선정’, ‘거점 창업선도 대학 선정’ 등 성과를 거둬 작지만 강한 우리대학교의 역량과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대학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27개국 179개 대학 25개 기관과 학술 및 학생 교류 협정을 맺음으로써 우리대학교의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들의 연구 성과도 잇따랐습니다. 사후 복제된 제주흑우 사이에서 세계 최초로 건강한 2세 송아지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하는 등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연구결과가 적지 않았습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립대 교수들의 연구논문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주대는 정교수·부교수·조교수 모두 논문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정교수의 경우 1인당 평균 논문 상송폭이 국립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이 같은 성과는 우리 대학을 사랑하고 노력 해주신 대학가족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묵묵히 연구실과 강의실에서 열정을 보여준 교수님과 소임을 다해주신 직원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대학 가족 여러분!

올해 역시 우리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새해에 풀어나가야 할 당면과제는 바로 ‘대학구조개혁’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전체 대학을 절대 평가를 통해 5등급으로 나누고 최상위를 제외한 나

머지 4개 등급에 속한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4등급인 ‘미흡’과 5등급인 ‘매우 미흡’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이도록 하고 ‘매우 미흡’ 대학 가운데 교육의 질이 부실한 대학은 퇴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지원도 등급에 따라 이뤄질 전망입니다. 1등급인 ‘최우수’부터 3등급인 ‘보통’ 대학까지는 모든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미흡’ 대학은 국가장학금 II 유형과 학자금 대출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 ‘매우 미흡’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급중단과 학자금 최소대출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등급 분류를 위한 평가 또한 기존 정량평가에다 대학특성, 지역여건, 지역사회공헌, 특성화 발전전략, 구조개혁 실적 등의 정성평가가 더해짐으로써 뼈를 쥐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년 한해에도 우리는 새로운 변화와 험난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들 간의 무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대학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대학 가족 여러분!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변화를 통한 발전의 열망이 필요합니다. 상아탑의 권위에 안주하면서 현상 유지에 급급해서는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다.

우리의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실수가 두려워 현실에 안주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성공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새해를 맞이 합시다.

존경하는 대학 가족 여러분!

지난 11월 제 9대 총장 임웅 후보자 순위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장임웅후보자 선정에 관한 일부 규정이 다소 미흡해 후보자간에 갈등이 빚어진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이제 총장공모로 인한 선의의 경쟁은 끝났습니다. 비록 공모로 인해 우리들은 잠시 인위적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하나가 되어 거센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선거기간 동안 함께 대학발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주신 내 분 총장후보자님들께 거듭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 분 교수님의 송고한 뜻과 제시해주신 좋은 정책들은 적극 수용해 소통과 화합의 가치 아래 대학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저의 제주대학교 8대 총장 임기도 한달 보름여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과 저가 함께 추진해온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구성원 모두의 의지와 열정이 함께 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허향진 총장

역동적이고 승승장구하는 제주대를 기대한다

2014년 갑오년.

역동성과 승승장구를 의미하는 푸른 말의 해가 왔습니다.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역동적이고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는 총장간선제를 통하여 제9대 총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의 총장간선제는 앞서 실시한 강원대학교의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고자 많은 분들이 상당 기간에 걸쳐 연구와 토론 및 공청회를 통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총장선정 규정은 다른 거점국립대학에 모델이 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실시해보니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미흡과 내용에 혼란도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의 정립이란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새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선거제도

는 더욱더 그렇다고 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만족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입법자의 글은 책상 위에서 쓰여지고 행위자의 실행은 책상 밖에서 하는 것이어서 그런가 봅니다. 확인된 잘못은 고쳐야 합니다. 조만간 이에 대한 백서가 출간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완벽한 제도를 위한 작업을 2014년에 해야 할 과제로서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말의 해, 지질 줄 모르는 천리마가 연상됩니다. 제주도의 이미지 중의 하나가 말입니다. 우리 대학교도 그 이미지에 맞게 역동적이고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합니다.

때마침 우리 대학의 제9대 총장이 취임하게 되어 우리 대학이 역동적이고 승승장구하는 기수의 역할을 그려

봅니다. 해마다 팽창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조직은 어느 한 사람의 역할로 천리마와 같이 달릴 수 없습니다. 신체의 모세혈관이 왕성해야 전신이 왕성해 집니다. 대학 본부는 단위 기관별로 왕성할 수 있도록 운동 양을 주어야 합니다. 모든 걸 본부로부터 통하게 하는 것은 어디에선가 병목이 생기게 됩니다. 쉽지 않은 것인줄 알지만, 병목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시급히 파악하여 우리 대학에 역동성을 불어 넣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대학구조와 무관한 사안인 기성회비 운용과 성과급제에도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 문제의 대안을 정부에서 입안하고 있지만 실제 당사자인 대학의 구성원들의 관심은 그리 크게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학교 밖에도 역동적인 행사들이 많습니다. 2월에 동계올림픽, 6월에 지방선거와 월드컵 그리고 9월에 아시안 게임 등, 자칫 학교와 떨어질 수 있는 행사들입니다. 이 행사에 쏠는 정열만큼 우리 대학에도 쏟는다면 2014년 우리 대학은 역동과 승승장구가 펼쳐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4년, 갑오년에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역동과 승승장구가 함께하시고, 건강하시고, 보다 윤택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송석언
교수회장

변화와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정신

희망찬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말 중에서도 청마의 해입니다. 말은 힘을 상징합니다. 청마의 해를 맞아 동문과 재학생, 교직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힘찬 기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동문, 재학생 및 교직원 여러분!

우리 제주대학교는 지난 52년 개교 이래 제주지역 인재양성 중심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출한 인재들이 제주를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올해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도전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제주의 한계, 대한민국의 한계를 뛰어 넘어 세계를 무대로 힘차게 나아가는 동문과 재학생 여러분의 건투를 바랍니다.

우리 총동문화에서는 올 한해도 동문과 가족, 재학생 여러분과의 교류를 돈독히 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세대 간 공감을 열어가면서 모교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문, 재학생 및 교직원 가족 여러분!

지금 세계의 큰 물결은 변화와 개혁입니다. 변화의 주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변하지 않고 있으면 뒤처지고 마는 세상이 되었습다.

미국의 역사를 바꾸어놓은 짧은 정치인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구호는 ‘변화(CHANGE)’와 ‘할 수 있다(YES, WE CAN)’였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미국 교육계에 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해낸 미셸

리 워싱턴DC 교육감은 “누구나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개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조금 어렵고 불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이 몸에 배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지킬 수 없습니다.

변화는 도전입니다. 도전에는 실패가 따릅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도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올해는 더욱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하는 후배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한 발명왕 에디슨의 말은 언제나 감동을 줍니다. 그는 백열전구의 필라멘트를 연구할 때 조수가 “90가지의 재료로 실험했지만 실패했다”며 중단을 제

안하자 “무슨 소리, 우리는 안되는 재료 90가지를 알아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패조차도 성공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실패’로 규정하면 스스로가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으로 생각하면 성공이 다가옵니다.

젊음은 도전과 동의어입니다. 도전에는 늘 무모함이 따릅니다. 조금의 무모함도 없는 도전은 무의미합니다.

말의 해를 맞아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희망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힘차게 새해를 열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김태환
총동창회장

특성화대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존경하는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의 새해와 함께 모교의 발전을 기원하는 신년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큰 기쁨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발전과 학문연구에 몰두하여 오신 허향진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과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주대학교의 기성회장을 역임한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이 대학을 졸업하고 제주대학교의 동문이 된 이후에도 저는 모교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를 항상 고민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적지 않은 발전기금도 기부하기도 하였으나 무엇보다도 동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성실한 삶이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어

진 지난 2년간의 기성회장직은 또 다른 측면으로 모교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대학교를 보내는 부모님 입장에서 대학 등록금은 부담일 수밖에 없지만 제주대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등록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제주대학교는 양적성장은 물론 질적으로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보여집니다.

양적으로는 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완공에 이어 수의과대학 본관 건물이 건축 중에 있으며, 제3도서관 신설, 제주천환경농업센터 유치, 체육관 리모델링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되어 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질적으로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39위로 평가되어 전년대비 한단계 높은 평가를 받았음은 물론 지방거점 국립대학교 중에서는 7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4년간 대학을 이끌고 왔

던 허향진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 및 교직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올해는 갑오년 말띠의 해입니다. 말은 예민하고 민첩하면서도 강인한 동물입니다. 또한 제주도와 가장 가깝고 가장 친숙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제주도는 전국 1%의 지자체라고 합니다. 사람 수에서도 그렇지만 동물 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올해 안으로 제주대학교가 있는 제주도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학교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의 경우 대학의 강력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지역과의 특성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합니다.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제주대학교가 제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특성화대학이 되기를 희망하며 저 또한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는 기성회장, 동문이 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 제주대학교도 말과 같이 예민하고 민첩하게 대처해 나가는 강인한 대학이 되기를 바라면서 올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안민찬
기성회장

끊임없는 대화로 학교발전 모색을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가고 가슴 벅찬 설렘으로 가득 찬 2014년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시간의 덧없음을 느끼는 이 시기에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들이 가슴 한 켠에 남지만 새로운 희망과 기대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 또한 이번 2013년을 뒤돌아보면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고 더할 나위없이 크고 값진 경험을 했다는 것에 대해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2014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묵직한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한 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46대 진짜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경성대학 경영학과 08학번 고광표입니다.

요새 우리 제주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청년들이 답답함에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등록금, 가장 두렵지만 꼭 해야 되는 원장스런 스펠, 내 원래의 꿈과 멀어져가는 나의 진로, 아무리 애기해도 들어주지 않는 우리의 사회를 보며 한숨만 커져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들은 점점 치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었

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입니다. 이는 우리 청년들의 지치고 울분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닌 그리고 서로 다르다는 문제를 떠나서 저는 이번 계기가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목소리를 통해 사회적인 울림으로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서로가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목소리가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의 살아있는 울, 또 우리 청년들의 생각이 깨어있음을 이번 계기를 통해 사회에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우리 안에 사무쳤던 목소리가 이제 사회와 더불어 학교로 울려 퍼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주인인 학교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진정한 주인인 학교생활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 집니다.

여러분!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목소

리를 대변하고 이 목소리가 학교에 스며들 수 있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회가 행동으로 보일 수 있으려면

학우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더욱 더 들려주셔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누가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 우리가 속한 학교가 더 크고 발전할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어야 하며 학생은 그 주인에 걸 맞는 목소리와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2014년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스며들어 우리 모두의 삶이 뿌리내려진 학교생활을 위해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해 갑시다.

여러분들의 행운과 축복이 2014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항상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고광표
2014 총학생회장

행복한 대학공동체 실현 위해 하나가 되자

희망찬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제주대학교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사년(癸巳年)인 지난 한 해는 다사다난 했다는 표현이 딱 맞는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따른 다양한 정책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논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 등 대학가에 몰아친 시련과 격랑으로 대학 구성원들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교육부와 청와대 앞에서 국립대학교 구조개혁 철회, 비국고회계규정 개정 중단,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현실화 등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전국의 수많은 공무원가족들과 투쟁을 함께 하였습니다.

갑오년 새해도 대학의 개혁과 혁신을 바라는 대내외의 요구가 폭풍우처럼 거세질 것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는 뼈를 쥐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끼여기 동참해 나가겠지만, 대학 민주화 및 자율성 말살, 대학 상업을 초래하고 공교육을 후퇴시키는 국립대학 구조개혁, 구성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학교는 올 2월부터 임

지를 타 대학에 비하여 무난히 선출하였지만, 일부 논란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총장선거도 끝났고 대학 구성원이 하나로 뭉쳐서 모두가 행복한 대학공동체를 실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많은 도전과 난관을 이겨내고 진정한 명품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전 구성원들이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제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갑오년은 행운을 상징하는 청마(靑馬)의 해입니다. 행운은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며, 남에게 상처주는 일을 하지 않고, 기쁨을 전하려고 노력하면 제주대학교 가족 모두가 행운이 함께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갑오년 새해 소망하시는 일을 모두 잘 이루시고, 가내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병헌
공무원직장협의회장

“뺨를 짖는 노력으로 변화를 추구하자”

2014년 시무식 2일 아라뮤즈홀서 거행

연구업적 우수교수, 강의평가 우수교원 등 표창

2014년 갑오년 시무식이 오는 2일 아라뮤즈홀에서 열린다.

이번 시무식 행사는 △공무원 윤리 헌장 낭독 △정부포상 전수 및 자체 포상 수여 △신년사 순으로 진행된다.

허창진 총장은 신년사에서 “대학이 풀어나가야할 당면과제는 대학구조개혁”이라면서 “뺨를 짖는 노력으로 변화를 통한 발전을 도모할 것”을 당부하게 된다.

다음은 시무식 표창 명단.

▲2013학년도 연구업적 우수교수 △김치완(철학과) 교수 △남진열(행정학과) 교수 △김정희(경영학과) 교수 △이순돈(과학교육과) 교수 △김소미(생명공학부) 교수 △허문수(해양의생명과학부) 교수 △이정훈

(전산통계학과) 교수 △송석준(수학과) 교수 △김 신(에너지공학과) 교수 △천원기(에너지공학과) 교수 △박남제(초등교육과) 교수 △지영흔(수의학과) 교수 △허대식(음악학부) 교수 △유은숙(의학과) 교수 △조문제(의학과) 교수 △최민주(의학과) 교수 △김성욱(법학과) 교수 △김원보(한영과) 교수

▲연구비수주 우수교수 △대상-김 신(에너지공학과) 교수 △우수상-박남제(초등교육과)·이영돈(해양과학연구소) 교수

▲강의평가 우수교원 △최우수-정창원(사학과) 교수 △민 기(행정학과) 교수 △김봉현(회계학과) 교수 △신창원(영어교육과) 교수 △현해남(생물산업학부) 교수 △김경력

(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 △김명숙(생물학과) 교수 △김순환(통신공학과) 교수 △강진식(통신공학과) 교수 △한남익(초등교육과) 교수 △윤영민(수의학과) 교수 △최보영(교육학과) 교수 △허대식(음악학부) 교수 △김여선(법학과) 교수 △김성준(의학과) 교수 △조유경(의학과) 교수 △윤상필(의학과) 교수

▲시간강사 △최우수-윤 정(일어일문학과) △홍성욱(통신공학과) △안애실(음악학부)

▲정부포상 △우수공무원(대통령 표창)-김태준(학생복지과) △모범공무원(국무총리표창)-문정희(총무과) △표창장(교육부장관표창)-정상기(시설과)·이영희(정보통신원)·정승남(교무과)

△명품대학 우수직원 대상(제주대학교총장 표창)-고봉상(홍보·출판센터)·조윤범(재정과)·고일규(시설과)·송승원(경영사업단) △명품대

학 CS리더(제주대학교총장 표창)-김문규(취업전략본부)·문정희(총무과)·양숙희(평생교육원)

▲우수학과 △종합평가 최우수-초등교육과·해양의생명과학부 해양생명과학전공 △종합평가 우수-철학과·체육학부·과학교육과 생물교육전공 △취업/국제화부문 최우수-관광경영학과·생명화학공학과 △취업/국제화부문 우수-정치외교학과·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연구부문 최우수-경영정보학과·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연구부문 우수-사회학과·에너지공학과 △외부평가(중앙일보평가) 우수-전산통계학과 △외부평가(중앙일보평가) 장려-수학과·경제학과

한편 이에 앞서 1일 오전 7시 대학본관앞에서 허창진 총장을 비롯한 대학보직교수 등 대학관계자들이 모여 고사를 지내고, 오전 9시부터 총흔모집을 참배한다.

강수빈 기자

“대학평가, 지방대 희생강요”… 교육부에 ‘지방대 공동화’ 대책 주문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등록금 현실화 등도 요구

전국 국·공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탈(脫) 지방대 공동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고석규 목포대 총장)는 지난달 12일 제주그랜드호텔 오라CC 회의장에서 '2013 제5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2018학년도부터 대학입학정원(2013년 기준 55만 9036명)이 고교졸업자수를 초과하고 2025년 이후 입학정원의 30% 이상이 충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에 탈 지

방대학 공동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방 국립대학육성을 위해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 확대와 육성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대학 교육공무원 등의 정원확충 및 배정 개선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또한 협의회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른바 '차별적 등록금 인상 현실화'를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전국 25개 주요 국립대학의 등록금 평균보다 낮은 대학의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록금 현실화를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문제점도 제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5년 실시 예정인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지난달 12일 제주그랜드호텔 오라CC 회의장에서 '2013 제5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경우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간의 교육여건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평가”라며 “지방대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해 지방대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협의회는

권역별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지역산업 여건 등을 감안해 권역별 대학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정원조율 우선유도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GTU 사업단 23일 개소

북수학위 등 해외대학과 교류

사업단 “취업을 제고 기대”

GTU(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 사업단(단장 김익상) 개소식이 지난 23일 통합교양강의동에서 열렸다.

GTU 사업단은 앞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와 함께 교육봉사 등 협력 사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사업단은 △북수 학위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과연 학생의 해외대학 교육 실습 추진 △해외에서 교원자격증 취득 및 교사 취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미국 보이시주립대학교(총장 Robert W. Kustra) 등 7개 협약 체결 대학과 북수 학위 취득, 교환학생, 교육 봉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정시 경쟁률 '3.1대 1'

다음달 5일 합격자 발표

2014학년도 정시모집에서 1852명 모집에 5751명이 지원해 평균 3.1대 1의 경쟁률 나타났다. 지난해 경쟁률 3.5대 1보다 0.34%p(퍼센트포인트) 하락했다.

모집 군별로는 나군이 1015명 모집에 2533명이 지원해 평균 2.50대 1, 다군은 837명 모집에 3218명이 지원해 평균 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단위별로는 다군 초등교육과가 17명 모집에 610명이 지원해 35.9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다군 수의예과가 13명 모집에 210명이 지원해 16.2대 1를 기록했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달 5일 제주대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6일에는 2014학년도 수시합격자 발표가 이뤄졌다.

새해 교직원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새해가 밝아왔다. 우리 대학도 새로운 꿈을 꾀다. 새 총장의 임기가 곧 시작되기 때문이다. 재선된 옥은 총장이긴 하지만, 그간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대학 개혁과 성장을 약속했기에 기대가 크다. 새 총장의 임기를 축하하면서, 변혁의 시대를 슬기롭게 개척하길 바란다. 하지만 외부 조건이 혹독하여 걱정도 앞선다.

갑오년은 우리 역사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났던 그때처럼 동아시아에서의 각축이 다시 시작되었고, 중국의 패권주의와 일본의 파시즘이 다시 총돌할 태세다. 우리도 군비 증강을 앞세우면서 북한과 대결하고 일본과 중국과 영토분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에 올 대학살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코백 매카시의 충고는 거짓이 아닐 것 같다. 갑오년을 겨울 삼아 평화를 정착시켜야 좋다. 그 평화가 제주로부터 발신되어야 하는 데, 제주는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전쟁의 중심부로 부각되고 있다. 제주대학이 제주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새해였으면 좋겠다.

120년 전처럼 진보와 보수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은 독목한데 정치인만이 어두워 나라를 위태롭게 했던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진보와 보수가 민족의 안위를 내팽개치고, 대통령은 '자랑스런 불통'을 내세워 암울하기만 하다. 암울한

국내정세가 제주를 비껴가지는 않는다. 제왕적인 도지사가 민심을 조각내고 민생을 파탄내고 환경마저 파괴하여 파국으로 잇달고 있다. 제주가 위태롭다. 제주의 미래가 위태롭다. 제주대학의 학생들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도지사에게 청년들이 있는가. 취업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배려한 적이 있던가. 흥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걱정하면서 정작 사람 걱정은 한 적 있는가. 한 해 600억 원을 들어 저류지를 만들면서 한 해 3천 만 원 연봉 2,000명의 젊은이를 취업시킬 수 있는 돈이 고작 600억 원이란 셈을 모르고 있던 말인가. 그런 의미에서 “도지사와 총장님, 새해에도 안녕들 하십니까?” 부정과 독재와 실업으로 얼룩진 이 시대를 사는 젊은 청년들의 분노의 목소리다.

내년 도지사 선거에는 청년 실업을 걱정하는 사람을 뽑자. 그래서 미래의 도지사가 미래의 총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착한 일자리를 만드는 아름다운 꿈을 우자. 제주대 교수들의 연구와 교육이 도민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제주도와 도민들이 제주대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어서 대학생의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을까. 1만 아라린이 애쓰면 우리 희망은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만이 희망이다. 젊은 청년의 취업이 희망이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의미 곱씹어 볼 때

우리사회의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 독재자를 일방적으로 미화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인 개인의 권리와 자율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을 방해하는 권력과 제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토대이다.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다름'을 '틀림'으로 단죄하고 통치자의 생각과 다른 생각에는 재갈을 물리려는 집단들이 내세우는 정치이념이다. 한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시장의 야만적인 경쟁과 착취의 논리로 해석되고 있는 모양이다.

프란체스코 교황마저도 “야만적인 자본주의는 이 악만을 우선시하면서 인간을 배려하지 않고, 착취하는 사고방식만 가르치고 있다”고 일갈하고 있다. 사회의 공공적 통제가 없는 자본주의는 자유는커녕 민주주의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파들은 이런 교황의 연사를 근거로 그를 마르크스주의자로 몰았던 모양이다. 하지만 교황이 원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인권의 보장이다. 이것을 사회주의로 몰아 부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면, 그리고 그것의 가장 천박한 모습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그것이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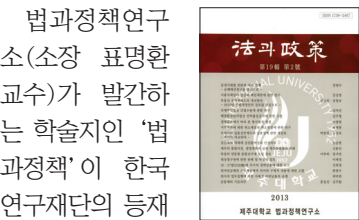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대학가에서 시작하여 중고등학교까지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나붙고 있다. 모두가 '안녕'하지 않지만 그것의 이유는 개인의 무능력이라고 가르치는 사회에서 침묵을 강요받았던 청년들이 개인이 아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이러한 목소리들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차이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안녕들 하십니까' 현상은 매우 고무적이고 그래서 권장해야 하는 것이다. 중·고등학생들이 스스로의 조건에 대해 질문하고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변학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시민'으로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사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민주주의'를 불편해 한다. 권력과 부를 휘두를 자유는 않지만 표현, 비판, 소통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무시한다. 우리사회의 미래인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러한 민주주의를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 지금 응원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교육'의 이름으로 이를 가로막는 교육당국과 기성세대의 한심함이 도를 넘고 있다. 교육당국과 기성세대가 민주주의를 '교육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곱씹어 볼 때이다.

법과정적연구소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선정



법과정적연구소(소장 표명환 교수)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법과정적'이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됐다.

한국연구재단은 2013년도 학술지 평가를 통해 정시발행 여부, 편집위원 실적, 투고 및 게재율, 게재 논문의 질적 수준 등을 종합 심사해 '법과정적'을 등재후보지에서 등재지로 격상했다.

2015 신입생 2556명 모집

수시 771명, 정시 1785명 선발

제주대는 2015년 수시모집에서 771명(30%), 정시에서 1785명(70%) 등 총 2556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입학관리과(과장 김석건)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학년도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했다.

수시모집인 경우 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 전형방법을 단순화해 정원 내 전형 수를 기존 5개에서 △일반학생전형 △교른기회전형 △예체능특기자전형 등 3개 전형으로 축소한다.

겨울방학 봉사활동 다양하게 마련돼

학과·동아리 단위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기부를 진행한다.

중어중문학과 학생(학생회장 오대진)들은 1월 6일부터 5일간 제주 시 예열을 하귀리에 위치한 제주 한빛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요로 배우는 중국어 교실'을 연다. 초등학생들에게 중국어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대학은 6일부터 9일간 초등학교 3~5학년 50명을 대상으로 '초등창의 컴퓨터 교실', 12일 초등학생들을 위한 '로봇과학 창의오디션', 13일부터 3일간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로봇활용 심화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교육은 초등컴퓨터 교육 전공교수들이 기부자로 나서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한 심화 교육을 진행한다.

또 과학기술사회연구센터(센터장 박남제)는 13일부터 3일간 현직 초·중교사를 대상으로 로봇활용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보급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 연수는 2015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 로봇교육이 도입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예비교원 로봇교육연수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번 연수는 로봇심화과정인 스마트폰·태블릿기반의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으로 교육용 로봇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로 조작해 보는 활용교육이다.

박물관(관장 김동진)은 7일, 14일, 21일 3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 선사시대로 떠나는 화석 탐험대'를 운영한다. 화석 발굴 체험을 통해 제주 선사시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동물병원(병원장 강태영)은 13일부터 5일간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수의사가 말하는 고양이 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의사가 되고 싶은 초등학생에게 '수의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반려동물은 어떻게 해야 잘키울 수 있는지', '강아지 해부구조, 강아지 행동 이해, 건강검진과 치료 방법'을 주제로 진행한다.

동아리 봉사활동도 이어진다. 액센트(회장 송시연·그룹사운드)와 크로우(회장 김민하·댄스) 동아리 회원들은 27일부터 이틀간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한다.

대학 관계자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체험 학습 위주로 짜여져 참여 학생들의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학습동기 부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생활관, 의무식 제도 완전히 폐지키로

식비단가는 인상

생활관 관리비는 동결

학생생활관이 의무식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

학생생활관(관장 김봉에)은 '2014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비의 정액'을 지난달 23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관리비는 동결됐다. 호관 및 A동, B동에 따라 1학기 관

리비는 34만2700원~54만2800원이며, 2학기 관리비는 33만700원~52만3900원 수준이다.

식비의 경우 식사를 선택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한다. 지난해 1학기까지 운영하던 의무식을 2학기부터 주말 포함 선택식과 주말예외 선택식 2가지로 나눴다. 하지만 식사를 하지 않는 학생들까지 식비를 내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식비단가는 오를 예정이

다. 지난해 2학기의 식비단가는 주말 포함 선택식은 2000원, 주중 선택식은 2200원이었다. 올해는 주말포함 선택식은 200원 상승한 2200원, 주중 선택식은 400원 증가한 2600원이다.

학생생활관 관계자는 “지난번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식사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학생이 30%가량 나온 점에 따라 식당 운영을 위해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여학생 생활관에 치안유지 위해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기존 사각지대 시야 확보

적외선 감지기 보안장비 설치

학생생활관(관장 김봉에)은 일부 대학에서 기숙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생활관 보안을 강화했다. 생활관은 지난 11월 20일 여학생동 건물입구 등 9곳에 HD급 200만 화소 감시 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

학생생활관 관계자는 “이번 CCTV설치를 통해 기존 카메라의

범위가 닿지 않았던 사각지대의 시야가 확보됐다”며 “41만 화소의 감시카메라는 얼굴인식이 힘들고 주변 환경에 따라 화질이 나빠지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설치된 카메라는 선명한 얼굴 인식과 고화질 화면을 갖춰 학생생활관 보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만 CCTV의 주요 기능은 외부인 침입 확인과 사건 증거자료 확보에 있기 때문에 도난사건

등의 경우, 학생 스스로의 예방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생활관은 이외에도 적외선 감지기 등 최신 보안장비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김아리(언론홍보학과 1)씨는 “학생생활관에 거주하다보면 도난사고나 외부인 침입 등 사건사고를 많이 접한다”며 “감시 카메라 설치를 통해 치안 문제가 점차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수빈 기자

백록학술상, 2팀 공동 가작 수상

이유지·강승호팀… 고준에 장려

신문방송사 제주대신문이 주최한 제33회 백록학술상에서 이유지(일반사회교육전공) 학생팀과 강승호(일

반사회교육전공) 팀이 가작에 선정돼 총장상과 상금 45만원을 각각 받는다.

관련기사 5·6·7면 이들은 각각 '남음리 귀농·귀촌자의 마을 커뮤니티 적응 실태'와 '예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창진

편집인·주간 김동윤

편집국장 김명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전화번호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ac.kr

‘안녕들 하십니까’ 자보 붙어… ‘게시불허설’ 파장

지난달 16일 대학 학생회관에 게시… “도저히 안녕할 수 없다”
일부선 “대학서 자보 게시 불허”… 본부 “사실 무근”
‘활동 사전 승인’ 등 비민주 학칙 근거로 규제 논란 불씨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전국대학 등 한국사회 각계로 퍼지고 있다. 제주대 일부 학생들도 대학에 자보를 게시했다.

처음 대학에 대자보가 붙은 것은 지난 12월 16일, 임규진(음악학부 1학년)씨는 학생회관 1층 게시판에 ‘아니요, 저는 도저히 안녕할 수 없습니다’ 제하의 자보를 붙였다.

임씨는 자보를 통해 “국가권력은 민간을 사찰하고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이적행위자로 몰아 구속하고, 쓴소리를 하는 언론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입을 막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임씨는 “‘구직자의 요구사항이 많다며 눈높이를 낮추어 취업하라’는 현실성 없는 발언을 대통령까지 나서 주장하고 있지만 피 튀기는 임시 경쟁의 산물로 65% 이상의 국민을 고학력자로 만들어 놓은 이 시점에 ‘알아서 아무데나’라는 말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뜨겁게 제기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임 씨는 “임기 중 지난 대통령 선거가 국가정보원, 국방부, 보건처, 경찰 등의 합작으로 이뤄진 국가권력개입 부정선거라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사과와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과 야권의 목소리를 몰데포로 진압하는 사악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심화돼 도래할 ‘완벽한 지배’의 시대에는 모든 정보를 차단, 검열 받으며 맞서 싸울 용기를 잃고 슬

럼프 고립돼 손 쓸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평생 자본과 기득권의 노예로 살아야 하나”고 되물었다.

임규진씨는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자보 열풍이 불었고 억울함 반, 분노 반으로 그 바람을 타고 대자보를 쓰게 됐다”고 말했다. 또 임씨는 “민주노총 불법집합 등을 자행하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극악무도한 정부를 퇴진시켜야 할 이유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모순에 침묵하지 않고 함께 비민주적 정권에 저항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씨의 자보 외에도 대학에는 “안녕하지 못하다”는 일부 학생들의 자보가 이어졌다. 아라캠퍼스에는 3명의 학생이 자보를 붙였다. 사라캠퍼스에도 서보라(초등음악교육학전공 4)씨 등 3명이 학생회관에 게시했다. 서씨는 자보에서 “참교육을 꿈꾸며 교사라는 이름으로 이 사회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서로의 안녕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자”고 말했다.

한때 일부 학생들의 ‘안녕들 하십니까’ 자보 게시가 거부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 김찬우·박광홍(사회학과 1)씨는 학생회관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학생회관에 붙이려고 17일 동아리연합회를 찾았다. 하지만 동아리연합회는 대자보 게재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동아리연합회 관계자는 “대학 본부에서 앞으로 ‘안녕들 하십니까’ 관련한 대자보에 직인을 찍어주지 말라고 대학본부 관련부서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와 박씨는 어쩔 수 없이 대학 정문에 대자보



지난달 16일 학생회관에 임씨의 대자보가 붙자 사람들이 자보를 읽고 있다.

를 붙였다.

이에 대해 박광홍씨는 “학생복지과의 지침은 학문의 장이라는 대학의 역할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외압설을 전면 부인했다. 학생복지과 관계자는 “학생회와 대자보 부착 여부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본부의 해명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사건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동아리연합회가 말을 바꿨다. 동아리연합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를 한 지 30분도 안 돼 해명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의사소통에 차질이 있었다”면서 “학생복지과의 외압이 아니라 정치적인 내용의 자보가 학생회관에 부착되면 해당 의견이 동아리연합회의 정치적 견해로 왜곡될 오해가 있어 학생회 자체적으로 대자보 게재를 제한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또 동아리연합회는 자보 게재 불허에서 물러나 자보를 1주일간 붙일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관

련 내용을 자보 게시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대자보 게시 거부 소동’이 대학본부가 ‘학생활동의 사전 승인’ 등에 관한 규정 등 비민주적 학칙을 근거로 재학생의 정치적 발언, 활동 등을 규제하려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대학교 학칙’ 제4장 학생 생활에 관한 규정 제1절 제79조에는 ‘학생활동의 사전 승인’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제1항에는 “학생회·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승인 대상에는 △교내 광고인쇄물 첨부 또는 배부 △간행물의 편집과 배포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한 사범대학의 학생은 “유신독재나 있을 법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잘못된 학칙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지 기자

“교사용 지도서 비치해주세요”

한 학생, 도서관 게시판에 글 올려
부산대·충북대 등 관련 도서 비치

대학에 교사용 지도서가 비치되지 않아 교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한 사범대학의 학생은 얼마 전 중앙도서관(관장 한석지) 자유게시판에 “교사 임용준비를 위해 필요한 교사용 지도서는 비매품이라 학생들로서는 구하기 어렵다”며 “중앙도서관에 교직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가 비치됐으면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교사용 지도서는 교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교육론·교재연구 및 지도법 수업, 교육대학의 수업 시 수업시연, 교육실습 및 2차 임용 수업실연 준비 등 쓰임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학에 교사용 지도서는 많지 않다. 학생 수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사범대학의 국어교육과 등 4개 학과만이 지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서관에서도 자료를 구하기 힘들다. 그나마 도서관에 있는 교사용 지도서 또한 사범대학 각 학과나 전공교과와 관련이 없다. 창의력 향상 또는 초등교사 임용을 위한 교재가 전부이다. 실질적으로 사범대학이나 교직이수를 준비하는 학생들

은 중앙도서관에 있는 교사용 지도서로 수업이나 교육실습을 준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일부 교수들도 지도서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범대학의 한 교수는 “교사용 지도서는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며 “사범대학 교수들의 연구와 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이수자들의 수업이해·교육실습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부산대, 충북대, 인천대 등의 다른 국립대학 도서관에 교사용 지도서가 있다. 특히 충남대의 경우 110권의 교사용 지도서 관련 도서 중 80여권이 학과나 전공교과에 관련된 교사용 지도서다. 부산대 관계자는 “수업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교사용 지도서를 활용하는 일이 많다”며 “임용 준비 등에도 쓰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중·고등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구입해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사범대학과 중앙도서관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도서 구입 시 구입범위와 관리, 예산문제 등에 대해 도서관 관계자와 사범대 관계자 간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소연 기자

2013 NCSI 전국 국립대학 중 4위

<고객 만족도>

전년 대비 만족도 12.9% 상승
본부 “등록금 인하 등 주요”

제주대가 한국생산성본부와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2013 고객만족도(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조사 국립대학교 부문에서 4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제주대는 서울대(74점), 충북대(72점), 충남대(71점)에 이어 전북대와 함께 7점으로 공동 4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대는 전년 대비 62점에서 12.9%가 상승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제주대, 서울대, 부

산대, 강원대, 충남대, 충북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경상대 등 총 10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2300여명의 1대1 개별 면접으로 이뤄졌다. 고객만족도는 고객의 기대수준, 인지품질수준, 인지가치수준, 종합만족수준, 고객불만수준, 고객충성도, 고객유지율로 구성돼 평가된다. 제주대는 등록금 4년 연속 인하·동결, 장학금 확대, 기초교양교육 강화, 외국대학 파견 교류 학생 확대, 취업지원 및 산학협력 강화 등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기획평가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복지 향상이나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약
지역인재 채용, 교육 훈련 등 협력키로

제주대는 지난달 16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안양호)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기관은 협약을 통해 △미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

공단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협력키로 했다.

협약식에는 허형진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교수와 안양호 이사장, 윤종기 제주지부장 등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5년 서귀포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다.

수산백신센터 주관기관 선정

해양수산부로부터 10년간 최대 100억 지원받게 돼

제주대가 정부 지원 수산백신연구센터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수당, 제주시유)은 해양수산부가 17일 이갑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수산연구센터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산백신 분야에 대한 지정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수산백신연구센터는 10년간 최대 100억원의 연구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아 국제 수준의 백신 개발 전문인력 양성, 고효율의 수산용 복합백신 개발, 개발 백신의 기술 이전을 통해 백신 산업화를 주도하게 된다.

백신연구사업에는 주관기관인 제주대를 비롯해 제주도, 제주어류양식수협, 해양수

산연구원 등 총 11개 기관, 79명의 연구진이 참여한다.

제주대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내 양식 어류 생산량은 약 8만t, 생산액은 7천200억원이다. 각종 질병으로 말미암은 양식 어류 폐사율은 50% 이상이고, 피해액은 2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대의 대표 양식어종인 남치도 지난해 연간 폐사량이 6700t으로 피해액이 500억여원이나 된다.

이제희(수산생명의학전공 교수) 연구책임자는 “양식산업을 대표하는 제주에서 체계적인 어류 질병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고기능성 복합백신을 개발하고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성용 회장 발전기금 쾌척
인재관·연흥·통공에 3000만원

공성용 KCTV제주방송 대표이사 회장이 지난달 20일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으로 3000만원을 쾌척했다.

공 회장을 대신해 방문한 김귀진 KCTV 대표이사는 이날 허형진 총장을 만나 인재양성관건립기금, 언론홍보학과, 통신공학전공에 이 기금을 전달했다.

공 회장은 지난 2002년 일어일문학과에 2000만원의 발전기금을 낸 것을 시작으로 2006년, 2007년에는 우수교수지원금으로 각각 3000만원, 2008년에는 통신공학전공, 언론홍보학과, 대학발전기금으로 3000만원을 기부했다. 또한 2010년에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언론홍보학과 등에 3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금까지 총 1억7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인터넷 전화로 전화세 절감
정보통신원, 이달부터 FMC 도입

인터넷 전화 도입으로 전화요금에 종전 대비 11%가 절감됐다. 정보통신원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한 인터넷 전화로 월평균 종전 1000만원에서 890만원으로 줄어, 약 110만원 절감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시외전화와 국제전화의 전화요금과 책정 방법이 달라졌다. 이로 인해 시외전화는 83%, 국제전화는 60% 등 요금이 크게 줄어들었다.

정보통신원 관계자는 “기존 회선에서 100회선을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은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원은 이달부터 FMC(유무선 융합)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대학구성원은 해외출장 시 스마트 통신기기로 무료통화가 가능하다.

사람들

강동식 교수, 사범대학장에 임명

강동식 과학교육과 교수가 지난달 2일자로 사범대학장 및 교육대학원장에 임명됐다.

신임 강 학장은 1999년 임용돼 과학교육과장, 과학영재교육원장, 교육과학연구소 영재 및 특수교육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박성진·이창희 교수, 개인전 열어

박성진·이창희 미술학부 교수가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회관 1전실에서 제주의 자연을 주제로 개인전을 각각 열었다.

박성진(제주도판화가협회 회장) 교수는 한국·일본·미국 등지에서 개인전 25회와 단체전 300여회의 기획·초대전을 했다.

‘제주를 마음에 담다’를 주제로 전시회를 여는 이창희 교수는 개인전 18회(중국, 일본, 한국 등)와 130여회의 기획·초대전을 열었다. 2003년에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송현주 교수, 우수 연세상 수상

송현주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열린 제63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연세상을 수상했다.

송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만성 설사에서 캡슐내시경의 진단율 및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다기관 연구(Diagnostic Yield and Clinical Impact of Video

김혜연 교수, 코치협회 기여상

Capsule Endoscopy in Patients with Chronic Diarrhea: A Korean Multi-center Study’ 논문을 발표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혜연(제주코칭리더십센터장) 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가 최근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코치대회’에서 2013년 협회 기여상을 받았다.

김 교수는 (사)한국코치협회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 상을 수상했다.

제10회 대한민국 코치대회는 730여명이 참석해 ‘코칭, 창조를 깨우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문일주 교수, 사이언스지에 실려

문일주 해양산업경영학과 교수의 슈퍼태풍 하이옌에 관한 인터뷰 내용이 사이언스지에 11월 29일자 (VOL. 342) 게재됐다.

사이언스지는 최근 필리핀에 상륙한 초강력 슈퍼태풍 하이옌의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기사를 실었다.

그동안 문 교수의 슈퍼태풍에 관련된 연구결과는 국내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번 역사상 가장 강력한 슈퍼태풍 하이옌의 발생을 계기로 문 교수가 연구 중인 ‘기후변화로 인한 슈퍼태풍의 특성변화’에 관한 연구결과는 더 많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남형 교수·고명진 원생 학술발표 우수상 수상

김남형 태양토목공학 과 교수·고명진 석사과정 원생이 광광학 JPM엔지니어링 소장이 최근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 컨벤션 열린 대한토목학회 ‘KSCE 2013 CONVENTION’에서 학술발표 우수상을 수상했다.

논문 제목은 ‘Analysis of Subgrade



Reaction acting on the Monopile Foundation of the Offshore Wind Tower (해상풍력타워에 작용하는 지반 반력 해석)’. 이 논문은 해상 풍력 타워에 60m/s의 강한 바람이 불 때, p-y 관계에 의해 풍력과 파력이 해상 풍력 타워의 형상에 따라 그 기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해석했다.



현정식 교수, 올해 발명가 대상 수상

현정식 경영정보학과 교수가 지난달 7일 서울 가든 호텔에서 열린 한국발명신문 주최 ‘제2회 대한민국발명가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를 빛낸 발명가 대상을 수상했다.

현 교수는 발명교육 분야와 발명저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았다. 그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생들에게 창의력을 향상 교육을 해왔다.

현 교수의 창의적 문제해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2007년~2013년 발명대회에 참가해 7년 연속 수상했다.

제주도민 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 대학창의 발명대회 수상, 대한민국



제33회 백록학술상 기작 논문

납읍리 귀농·귀촌자의 마을 커뮤니티 적응 실태

이유지(일반사회교육전공 3), 윤지희(일반사회교육전공 3), 김세훈(일반사회교육전공 3)

목 차 I. 문제제기 II. 논의의 배경 1. 이론적 논의 2. 연구대상과 방법 III. 연구결과 1. 귀농·귀촌자의 특성 2. 마을 주민과의 관계 3. 마을 내 조직적 참여 IV. 결론 <참고 문헌>

I.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 개발 계획을 시행하면서 산업화, 공업화가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이촌향도 현상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청·장년층 인구 유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결국 농촌 사회에서는 노동력의 부족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농촌 사회는 침체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 소득 수준, 교육·문화시설 등의 부분에서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고, 이는 농촌 사회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다. 이러한 격차는 사실상 해소하기가 힘들었고 농촌 인구의 유출은 계속 될 수밖에 없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농촌 인구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다시 감소하였다. 이때부터 30~40대를 중심으로 한 전업형 귀농, 생태지향형 귀농이 주를 이루기 시작하였고 2005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와 맞물리며 은퇴를 한 장·노년층의 귀촌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점차적으로 농촌 인구가 늘어가면서 2009년에는 이촌향도 경향에서 이도향촌 경향으로 역전되었다.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 오늘날의 농촌 사회도 전통적인 농촌의 모습에서 변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 농촌사회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 구성원이 실로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도시에서 이주해온 귀농·귀촌인 뿐만 아니라 다문화 이주여성, 외국인 농업근로자 등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다. 농촌 전통문화와 외래문화, 그리고 도시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주하여 온 목적은 상호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지역사회라는 공간을 매개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들이 문화와 가치관의 갈등을 극복하고 융합하며 지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이주민들의 성공적인 농촌 이주를 일구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귀농·귀촌 정책은 경제적 유인책이 중심이 되고 있다.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2012년 4월에는 귀농귀촌종합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국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귀농 수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의 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융자 및 보조금 사업과 영농 관련 기술이나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한 교육 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중요한 애로 사항 중 하나로서 ‘지역 사회에 동화’되기 어렵다는 점이 현장에서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유인책이 귀농·귀촌 정책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애월읍과 한림읍을 중심으로 한 농촌 지역의 인구 증가도 괄목할 만하다. 농촌 지역의 이러한 추세는 인구의 순유입이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탈산업화시대를 맞아 다시 농촌으로 회귀하는 이도향촌현상과 더불어 제주도가 타 시도에 거주하던 귀농·귀촌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자들이 새로운 기반을 조성하기에 적절한 정주 환경으로 인식되면서 도외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도 내에서도 신도로 건설로 인한 접근성 향상, 귀농·귀촌 지원책, 귀향 등의 요인들을 통해 농촌 지역으로의 이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납읍리 역시 한국 사회 전반에서 나타난 이촌향도 현상과 마찬가지로 1990년 대를 전후로 인구가 급감하였다. 이는 학령 아동의 감소를 불러일으켰으며 납읍초등학교는 통폐합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주민들은 ‘학교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빈집 빌려주기, 다세대 주택 지원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여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의 인구 유입을 이끌어냈다. 더불어 제 2의 삶을 꿈꾸며 도시에서 이주한 중장년층,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다문화 이주 여성,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등 각기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이주민들이 유입되어 기존의 지역 주민들과 동일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납읍리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공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납읍리 귀농·귀촌자의 마을 커뮤니티 적응과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II. 논의의 배경

1. 이론적 논의

1) 귀농·귀촌의 개념 정의 및 적용 관련 연구

귀농과 귀촌이 학술적으로 또는 정책 영역 안에서 엄밀하게 정의되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하기에 이 두 용어의 정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귀농(歸農)은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돌아감’으로 정의되고, 귀촌(歸村)은 ‘촌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의미한다. 귀농은 귀촌의 의미에 ‘농업에 종사할 목적이나 의도를 가진다’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귀촌은 귀농을 포함시키는 광의적인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귀농과 귀촌의 개념 정의를 찾아볼 수 있다. 강대구(2006)는 귀촌은 ‘농촌으로 이주하는 인구 이동’으로, 귀농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 혹은 농업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강경하 외(2008)는 이주 전 거주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만 한정지어 정의하기도 하였다. 김정섭(2009)도 ‘귀농’은 농업에 종사하려는 목적으로 외부 도시로부터 농촌에 신규 전입하는 인구이동을, ‘귀촌’은 귀농을 포함하여 도시로부터 농촌에 신규 전입하는 인구이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김백수(2013)는 귀농가구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역할 재정립, 마을 주민과의 관계, 영농관련 기술 습득을 통해 농촌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해야 되기 때문에 농촌사회 적응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강대구(2010)는 도시지역의 직장에 통근하거나, 교사나 공무원 등의 직업을 제외하면 귀농자가 농촌에서 농업과 무관한 직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순수한 귀촌자의 파악이 실제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귀농·귀촌자가 농촌 마을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도 찾아볼 수 있었다. 먼저 김경미(1990)는 적응을 인간 육구의 만족 상태를 말하며 그 육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부적응 상태에 있으며, 인간의 육구가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자신을 잘 조정하여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적응이라고 하였다.

구동희(2004)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도시생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을 공유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마상진(2007)은 신규 귀농자들이 겪는 진입 장애 해소의 실마리는 경제적 자본보다는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에 있다고 하였다. 김철규 외(2011)는 연구를 통해 귀촌인은 마을주민과 지역사회에 협력하고 융화되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자’를 ‘원래 거주지의 특성과 상관없이 농촌 지역에 이주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새로 이주한 농촌 지역에서 적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마을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커뮤니티의 개념 정의 및 선행 연구

커뮤니티(Community)는 라틴어로 ‘갈음’을 뜻하는 communitas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으며, 이 말은 또한 communis, 즉 ‘같이, 모두에게 공유되는’에서 나온 뜻으로 공동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백과사전에서는 커뮤니티의 정의를 ‘사회조직체로서 공간적·지역적 단위’, 혹은 ‘이러한 단위와 관련되는 심리학적인 결합성 또는 소속감’로 정의한다(두산백과, 2013).

Mattessich 외(1997)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안에 살면서 상호간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유대를 가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였다. Hillery(1955)는 ‘사회적 상호작용, 지역(area), 인간관계의 공통적 연계를 공동체적 삶에 대해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으로서, ‘지리적 영역 내에서 공동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장현일(2004)은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연대의식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공성에 대한 가치와 이익을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역할분담을 통한 상호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집단’이라 정의하였다. 그리고 커뮤니티의 성립조건을 동일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형성, 구성원들 생활상의 상호관련성, 구성원들 간의 합의와 협동을 만들어낼 공

통성 등으로 들었다. 최윤지 외(2012)는 일정한 영역에서 구성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의 유대를 통해 공통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등의 가치를 인식·공유·창출하는 유기체적 집단을 커뮤니티로 정의하고, 그 기본적인 요소로 지역성, 사회적 상호작용과 연대의식, 공동의 관심과 소속감 등을 제시한다. 박수걸(2011)은 공동체를 시각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일정 부분의 장소를 공유하면서 사회적인 교류관계에 의해서 지속적인 접촉과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심리적 공동의식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진 지역적 사회집단’이라고 하였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하여 커뮤니티의 구성 요소를 다음의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커뮤니티의 구성요소 분석

구분	mattessich 외	hillery	장현일	최윤지 외	박수걸
지역성	o	o	o	o	o
지역에 대한 애착심					o
공동체 의식	o	o	o	o	o
동질적 유대감	o		o	o	
주체적 참여성			o		o
사회적 상호작용		o	o	o	
지속적인 접촉			o		o

마을 커뮤니티의 요소로 지역성, 공동체의식, 유대감,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을 커뮤니티를 ‘한 마을에서 살아 가면서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을 가지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 혹은 모임’으로 정의한다.

3) 분석틀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납읍리로 이주한 귀농·귀촌자들이 마을 커뮤니티를 통하여 농촌 지역 사회에 적응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인 ‘납읍리 귀농·귀촌자’의 범위는 이주하기 전의 지역 특성이나 이주 후 농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납읍리로 유입된 이주민 전부로, 마을 커뮤니티는 귀농·귀촌자들이 납읍리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 및 마을단위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납읍리 귀농·귀촌자의 특성, 마을 주민과의 관계, 마을 내 조직적 참여를 분석 초점으로 설정하였다.

<표 2> 분석틀

분석 초점	내 용
귀농·귀촌자의 특성	-이주 전 거주한 지역은 어디인가 -이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 정착 준비를 하였는가
마을주민과의 관계	-마을 주민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극적으로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는가 -현재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마을 내 조직적 참여	-마을단위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가 -마을단위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마을단위활동에 만족하는가

첫 번째 분석 초점은 ‘귀농·귀촌자의 특성’이다. 귀농·귀촌자의 이전 거주지, 이주 계기, 정착 준비 방법을 알아봄으로써 커뮤니티의 적응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마을주민과의 관계’이다. 홍성호 외(2012)는 선행 연구를 통해 실제 귀농자들이 직업적, 경제적 적응보다 주민 사회와의 통합과 같은 사회적 적응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였다. 특히 새로이 농촌에서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경우 농촌에 적응하기 위하여 누군가와와의 협력을 통한 정보 획득과 상부상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마을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적 요인으로서 마을주민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는 ‘마을 내 조직적 참여’이다. 여기서 조직적 참여란 마을에 이미 조직되어 있는 마을회, 청년회, 부녀회, 학부모회, 반 등을 통한 마을단위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에 영향을 주는 마을단위활동을 살펴보고 이것이 귀농·귀촌자들의 적응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인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는 한라산 정상을 기준으로 북서쪽으로 약 30km, 해안을 기준으로 약 2.5km 지점에 위치한 중산간 마을이다. 다른 농촌 지역에 비해 시내와의 통행이 용이하

나 시내권 중심의 개발이 심화되면서 납읍리 또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 유출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시골학교인 납읍초등학교 또한 학생 수가 줄어들어 통폐합대상에 오르게 되었다. 이에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며 1997년 19세대, 2001년 12세대 등 빈집과 공동주택 31세대를 마련하여 초등학교생이 있는 가정에게 무상으로 제공 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노력을 통한 학교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결정된 통폐합대상학교 기준인 학생 수 60명 이하에 해당되어 2011년에는 통폐합 대상 학교로 지정되었다. 이에 주민들은 10여 년 전 시작해온 학교살리기 운동을 이어나가 이듬해 공동주택인 ‘금산학교마을’을 준공하였다.

<그림 1> 애월읍 납읍리 지도



<표 3> 학교 살리기 운동의 과정

연도	빈집 빌려주기 운동	10가구(납읍리 이정의 중언)
1992~		
1998년	다가구주택 준공	2동 19세대
2001년	호도마을 준공	12세대
2012년	금산학교마을 준공	4동 24세대

<그림 2> 학교살리기운동 다세대주택 위치



그 결과 초등학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이주가 증가하였고, 현재 납읍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107명으로 통폐합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납읍리는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학교살리기 운동을 비롯하여 관광적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과 시내와의 접근성 등의 요소를 통해 이주민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납읍리 주민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래의 표는 납읍리의 인구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표 4> 납읍리 인구 추이

연도	주민 수 (명)	연도	주민 수 (명)
1980	2,025	2000	1,351
1991	1,286	2011	1,284
1993	1,311	2012	1,357
1997	1,384	2013.10	1,375
1998	1,396	자료 : 애월읍사무소	

1980년 2,025명이었던 납읍리의 인구는 80년대 말 1,779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1991년에는 1,286명으로 급감하게 되었고,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에는 1,384명으로 인구수가 소폭 상승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는 다시 감소하였다가 2013년 10월 말 현재 1,375명으로 3년 연속 증가 추세에 들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 기간은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대상을 구체적인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법, 심층면접법, 그리고 질문지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법은 연구하고자 하는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해 이미 연구된 결과물이나 역사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므로 시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으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폭넓은 연구가 가능하다. 이 방법을 통해 귀농과 귀촌,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논문들을 참조하며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이루어진 귀농과 귀촌의 양상을 파악하고 선행 연구를 통하여 커뮤니티의 요소와 귀농·귀촌자들이 농촌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심층면접법은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로서, 연구자가 연구 대상과 대면 접촉을 하여 어떤 주제에 관해 응답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개인의 심층에 있는 동기나 태도, 감정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이다. 4월부터 11월에 걸쳐 납읍리 이장 및 납읍리 귀농·귀촌자 일부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질문지법은 연구자가 어떤 문제에 관하여 작성한 일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피험자가 대답을 기술하도록 한 조사방법으로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자료기록 및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납읍리 귀농·귀촌자의 특성, 지역주민과의 관계, 마을 내 조직적 참여를 알아봄으로써 납읍리 귀농·귀촌자들의 커뮤니티 적응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3년 5월 25일~26일에 걸쳐 질문지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 55부의 응답지를 수거하고 통계처리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ver.18을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을 주로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5>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5> 조사대상자의 특성

사회 인구학적 변수	항목	응답자 수 (%)
	남자	20(36.4)
성별	여자	35(63.6)
	20대	4(7.3)
	30대	20(36.4)
	40대	21(28.2)
	50대	7(12.7)
연령	60대	1(1.8)
	70대 이상	2(3.6)
	농림업	2(3.6)
	자영업	8(14.5)
	공무원	2(3.6)
	회사원	8(14.5)
	주 부	20(36.4)
	전문직	8(14.5)
	기타	7(12.7)
	초졸	1(1.8)
최종학력	중졸	0(0)
	고졸	22(40.0)
	대졸	31(56.4)
	대학원졸	1(1.8)
거주기간	1년 미만	29(43.6)
	1~5년	18(34.5)
	6~10년	8(14.5)
	11~15년	3(5.5)
	16년 이상	1(1.8)

응답자의 대부분은 여성(63.6%)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36.4%, 40대가 38.2%로 30~40대가 가장 많았다. 직업은 주부가 36.4%, 자영업과 회사원은 각 14.5%, 농림업은 3.6%였다. 농촌 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납읍리의 귀농·귀촌자들은 펜션 등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관광 산업에 종사하거나, 도시 지역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도시 지역이나 납읍리 내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학력으로는 고졸이 40%, 대졸이 56.4%였다.

납읍리에서의 거주기간은 1년 미만인 43.6%, 1년 이상 5년 미만인 34.5%로 최근에 이주한 경우가 많았다. 납읍리의 거주기간이 11년 이상 15년 이하(5.5%), 16년 이상(1.8%)인 경우도 귀농·귀촌자의 범주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10년 이상 된 경우에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주민의 경우에도 갈등이 발생할 경우 10년 이상 거주해온 귀농·귀촌자를 지역주민으로 완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6면으로 이어짐)

Ⅲ. 연구결과

- 1. 귀농·귀촌자의 특성
- 1) 이주 전 거주지의 특성

<표 6> 이주 전 거주지의 특성 (단위 : 명)

지역특성 행정구역		도시지역	농촌지역	기타(ex. 도·농통합)	총합
도내	제주도	12	7	1	20
도외	서울특별시	11	0	0	11
	경기도	5	0	1	6
	대전광역시	2	0	0	2
	부산광역시	9	0	0	9
	전라북도	0	2	0	2
	충청남도	0	0	2	2
	해외	3	0	0	3
총합		42	9	4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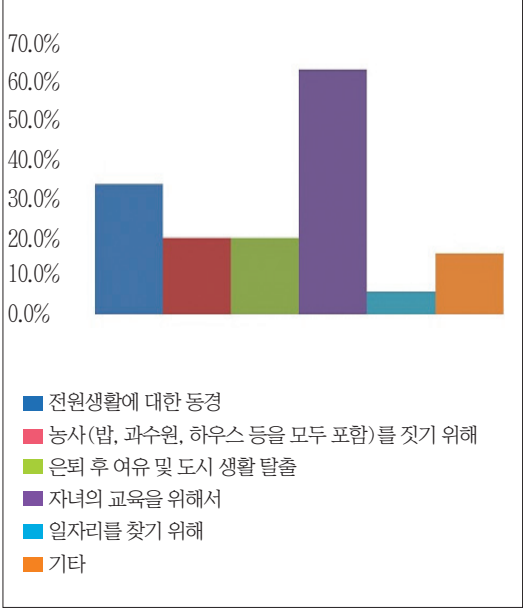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자 중 제주도 외에서 이주해 온 경우는 35명이었고, 도내에서 이주해온 경우는 20명이었으며, 도시 지역에서 농촌 지역인 남읍리로 이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체 도와 이주자 중 85.7%가 도시 지역에서 이주하였다고 응답하여 도시로부터의 유입이 더 활발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의 이주가 30%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유입이 많은 편이다.

2) 이주 계기

오수호(2013)는 연구를 통하여 귀농·귀촌 가구의 귀촌동기를 이상적인 삶, 도시생활염증, 사업실패 및 실직, 폐쇄한 환경, 도시생활에 대한 염증, 건강관리

목적, 노후대비 등이라고 하였다. 농촌 이주의 계기는 이주민이 귀농·귀촌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목적, 추구하는 가치관 등을 유추해볼 수 있는 질문이다. 이를 토대로 농촌의 이주 계기에 대하여 복수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7> 남읍리 이주 계기



남읍리로 이주하게 된 계기로는 ‘자녀의 교육문제’가 응답 비율 중 58.1%를 차지하였다. 이는 ‘학교 살리기 운동’을 통하여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유입된 남읍리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30.9%)’, ‘농사를 짓기 위해(18.1%)’, ‘은퇴 후 여유를 찾기 위해(18.1%)’ 등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정착하였다는 답변이 5.4%였는데, 이는 캠핑장, 펜션 등의 관광 관련 업종을 준비

하는 경우였다.

다음의 <표 8>는 연령대 별 이주 계기를 분석한 표이다.

<표 8> 연령대 별 이주 계기 (단위 : 명)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응답 수
이주계기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	0	10	5	2	0	0	17
농사를 짓기 위하여	1	4	3	1	1	0	10
은퇴 후 여유를 찾기 위해	0	2	3	3	0	2	10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3	12	17	0	0	0	32
일자리 (농업 외)를 찾기 위하여	0	1	1	1	0	0	3
기타	1	3	3	1	0	0	8
응답 수	5	32	32	8	1	2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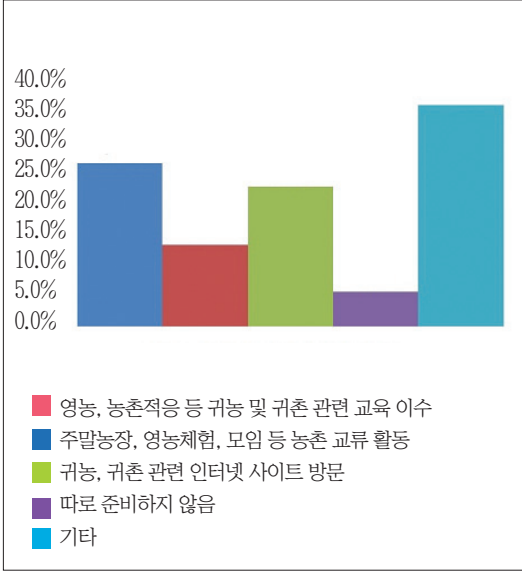
응답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0~40대 응답자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을 선택하여 대부분이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일 것으로 보인다.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은퇴 후 여유를 찾기 위해’를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연령층에 따라 농촌 이주 계기가 다름을 알 수 있다.

3) 이주를 위한 준비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남읍리로의 이주를 준비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복수응답하도록 하였고, 문항 외의 답변이 있을 경우 기타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응

답하도록 하였다.

<표 9> 이주 준비 방법



남읍리 정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전 거주지의 지자체나 농업 진흥청 등에서 주최된 강연, 사이버교육 등의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25.5%였다. 그리고 귀농·귀촌 관련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21.8%였고, 주말농장·영농체험 등의 농촌 교류 활동을 경험하며 농촌 이주를 준비하였다는 응답이 12.7%였다. 반면, 따로 정착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경우는 5.5%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살다가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사례가 해당되었다. 그리고 기타 답변의 경우 지인을 통하여, 남읍리 사무소와의 전화 상담을 통하여 등이 있었다.

귀농·귀촌자들은 마을에 정착한 뒤에도 제주도 농업기술원, 서귀포시청 등의 기관을 통한 귀농·귀촌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의 <녹취문 1>과 <녹취문 2>는 남읍리 귀농·귀촌자들의 심층면접 내용이다.

<녹취문 1>

연구가 있는 분이 한 분 계시가지고 소개로 그 분은 제주 본토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도 육지에서 일 년 정도 전에 되었을 때, 우리보다 한 일 년 전에 왔으니 2년 정도.. 지금 2년 정도 되었지. 그 분이 토지, 부동산 쪽 정보를 취가지고 와서 보니까 관장은 것 같아서, 농사짓는 이런 건 잘 모르니 그런 정보보다는 부동산 쪽 정보였지. 이후에는 작년.. 연말 올 한 2, 3월까지는 거의 그냥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데 들어가서 내가 들을만한 정보가 있는지 들어가보긴 했는데 특별히 거기에 가입하거나 참석하고 참여하고 이런 건 없었고, 올 2월 말인가부터 귀농교육,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귀농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지. 아 이게 괜찮겠다 싶어서 귀농교육도 받고 또 농업기술원 쪽에서 시행하는 그런 거 여러 개를 수강하면서 농기계 작동이라든지 밭작물 재배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방법,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아직 안 끝났는데, 관광대학에서 운영하는 농촌건강체험지도사, 농촌건강경영자과정? 농촌 체험 지도사 뭐 그런 거 공인된 자격인가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런 증서를 준다 그러더라구. 그래서 참여를 하고 있지...(중략).....이주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정기적인 모임이라든지.. 예를 들어 매 달 한반이라든지, 회비를 모아서 이런 모임은 안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 귀농 교육이라든지 가서 막 보다보면 ‘아.. 어디 살아요?’ 하고 저녁에 어느 집에 모여서 술도 한잔하고 얘기도 나오고..

2013. 8. 31. 숙박업 종사자, 남, **세.

<녹취문 2>

이미 우리는 이 밭, 이 동네로 우리가 여기 이사 왔잖아. 우리가 땅이 필요하면 우리가 이장을 알거나 동네사람하고 친해지면 그 사람들하고 친분으로 그 땅을 빌릴 수가 있지. 그렇게 우리가 육지에서 알고 온 거하고, 오면 그 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요, 실재가 아니다 이거야. 각각 개인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최근에 어떤 사람이 있었나하면 애 셋을 데리고 도시에 있는 집을 임대 놔버리고 한때 티비에 방영되었던 여기 남읍에 초등학교에서 학교 살리기를 하는데.. 여기 와서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니면은 집도 주고, 이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집을 내놓은거야. 집이 바로 나가버렸어. 한 달 있으면 집을 비워야 돼. 와가지고 남읍에 초등학교니, 뭐 가장 하加里장.. 상加里 가장.. 불성리 가장 오만 이장을 찾아가서 가서 봐도 빈 집이 없는거야. 이 사람들은 방송만 보고 왔는데 결국 여기서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돌이를 고내에서 여기까지 자기가 차를 가지고 등하교를 시켜야 하는거야. 집이 없으니까.. 뭐 제주도에는 귀농귀촌하면은 도에서 행정적으로 뭐 어찌고저찌고.. 마을단위로도, 뭐 외지에서 볼 때는 텔레비전에서 나온 거 제주도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지원 많이 해주고 수용을 할 것 같이 수용태세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이 해놓고, 아니잖아? 택도 없는 그런 방송들을 하고 있는 거야.

2013. 8. 31. XX식품 직원, 여, **세.

<녹취문 2>에서 알 수 있듯이 정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귀농·귀촌자들은 상대적으로 정착지에 대한 문화, 주민 생활에 대한 정보보다는 주택가, 지대 등과 같은 경제적 정보에 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준비과정에서 귀농·귀촌자들이 접하는 정보들 중엔 부정확하거나, 과장되어진 정보들이 많아 이주 이후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귀농·귀촌자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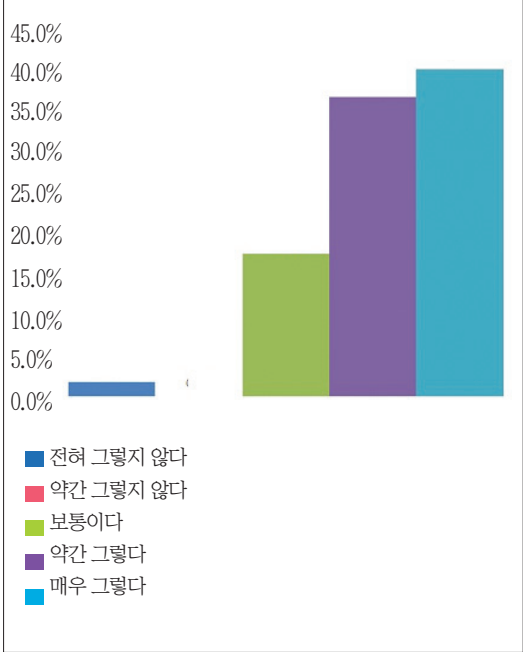
생기는 경우도 있다. 또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인터넷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대체로 귀농·귀촌 희망자이거나 이미 정착한 귀농·귀촌자들로 구성되어있고 연구가 없는 곳일 경우 실제 마을 주민들과 접촉할 기회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 준비 과정에서는 원 주민과 단절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2. 지역 주민과의 관계

남읍리 귀농·귀촌자들과 지역주민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문항에 리커트 5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마을 주민에 대한 인식,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한 적극성과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마을 주민에 대한 인식

<표 10> 마을주민들은 서로 상부상조 하고 인심이 좋은가



남읍리 귀농·귀촌자들이 마을 주민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마을 주민들은 서로 상부상조하고 인심이 좋은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매우 그렇다’ 혹은 ‘약간 그렇다’에 응답자 중 80%가 응답하였고, 부정적인 응답은 1.8%로 거의 없었다. 따라서 남읍리 귀농·귀촌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을주민에 대한 인식은 우호적인 것을 알 수 있다.

2)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적극적으로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중 65.4%는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를 선택하여 대다수의 귀농?귀촌자들이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심층면접을 통하여 남읍리 귀농·귀촌자들과 원 주민과의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서 교류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녹취문 3>

여기는 마을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교류화가 되어있다 보니까 뭐, 초저녁만 되도 다 농사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불도 끄고, 캄캄하게 되는데 다른 뭐 행사를 한다, 그니깐 농사 외에 다른 생활이라는 게 없어. 음, 리사무소 같은데서 특별하게 무슨 길흉사라든지, 마을 체육대회, 같은 공식적인 행사가 없으면 사람들이 뭐, 모여서 뭘 한다는 자체가 안 되는 거지.

2013. 8. 31. XX식품 직원, 여,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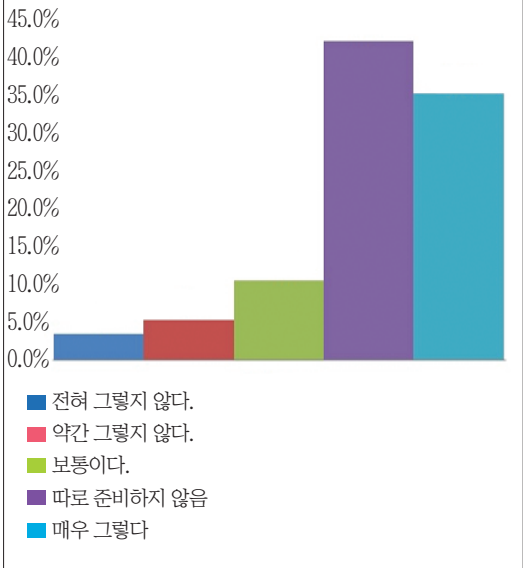
<녹취문 4>

우리는 농사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랑은 일하는 자체가 틀려버리니까. 그렇다보니 공통적으로.. 공통적인 대화의 소재 자체가 없으니.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왜냐하면 만나가지고 뭐 성격적으로 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화의 소재가 틀리면은 서로 상대에 대한 이해가 안 되게 되고 대화..그게 제일.....

2013. 8. 31. 숙박업 종사자, 남, **세.

3) 주민들과의 관계 만족도

<표 11> 마을 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현재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80%가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를 선택하였다. 남읍리 귀농·귀촌자들은지, 현재 마을주민들과 형성하고 있는 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마을단위활동 참여(7번으로 이어짐)

사회공헌 1위 은행

100%국내자본은행

고객 수 2700만명

NH농협은행이 고객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꿈을향해먼저라

NH농협금융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증권 NH농협캐피탈 NH농협신용 NH-CA자산운용

NH농협은행 제주대학교지점

여부에 따른 주민과의 관계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통해 다음의 <표 9>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귀농·귀촌자들이 주민과의 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12> 마을단위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주민과의 관계 만족도

구 분		주민과의 관계에 만족하는가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참여 여부	참여	1	0	4	12	7	24
	비율(%)	4.2	0	16.7	79.1		100
	비참여	1	0	13	9	8	31
	비율(%)	3.2	0	42	54.8		100
전체		2	0	17	21	15	55
비율		3.6	0	31	65.4		100

마을단위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24명 중 주민과의 관계에 대해 19명이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대답하였다.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31명도 대체로 주민과의 관계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참여하는 경우 79.1%, 참여하지 않는 경우 54.8%로 마을단위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마을 주민과의 관계에 만족한다는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납읍리 귀농·귀촌자들과 마을주민 서로 간의 문화적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귀농·귀촌자가 주민들과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정착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도 <녹취문 5>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녹취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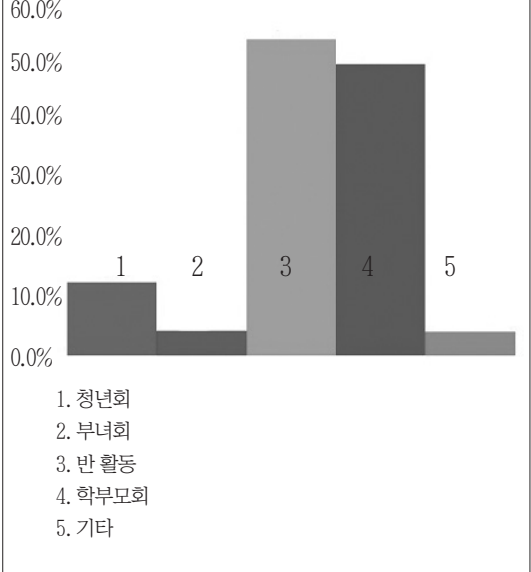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 카페를 만들어서 자기끼리 소통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쪽으로 별로 안가고 힘을 모아서 동네 유지분들하고 식사를 한 번 합시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문화가 육지하고 다르거든. 그러면 우리가 육지에서 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 오는 건 좋은데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야. 아직 친하기 전까진.. 극단적인 얘기가 그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육지 사람이 일을 하러 왔어, 6개월 간 살다 갔어. 왜 갔냐 하나까 사람들이 자기 아는 척을 안 한다는 거야.. 첫째로 다들 바빠. 둘째로는 경계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은 동네사람들을 모시고 저녁이나 하자고 부르거든.. 일곱 명, 여덟 명.. 주변 사람들이랑 식사 같이 하자고 와주십시오..하고 초대를 했는데 단 한 명도 참석을 안 한거야. 여기 사람들은 초대받아서 갈만한 사이가 됐나 안 됐나. 집들이면 갔을지도 모르지. 근데 육지에서 온 사람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되는데, 누가 진짜 뭐 그런 일 있을 수도 없겠지마는.. 리에다가 순조롭게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서 월급을 줘가면서 시켜도 그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될 걸.. 자기가 그런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나름대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그럴 뉘 연결해준다고 해야 되고, 따로 격리되고, 뭐 이런 건 아니지.

3. 마을 내 조직적 참여

1) 마을 조직체 참여

'마을조직체에 참여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참여한다'의 비율은 43.6%였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56.4%였다. 이중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던 24명을 대상으로 어떠한 마을 활동에 참여하였는가의 질문을 하여 복수응답을 하도록 하였는데, 청년회에는 3명, 부녀회에는 1명, 반 활동에 13명, 학부모회에 12명, 기타 2명으로 응답하였다. 같은 구역의 거주민들이 모이는 반 활동이나 학부모회에 참여하는 비율은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청년회와 부녀회와 같이 마을 전체 단위로 이루지고 기존 마을 주민이 중심이 되는 조직체의 경우 참여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표 13> 마을조직체 참여 종류



반 활동의 경우 납읍리 마을회 측에서 물리적 거리에 따라 일괄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학교살리기 운동 이전에는 1반에서 19반까지 있었으나 이후 다세대주택을 지으면서 다가구주택, 효도마을, 금산학교마을 등 다세대주택마다 1반 씩 단독적으로 부여되어 3개의 반이 추가되었다(20반, 21반, 22반). 그런데 아래 <녹취문 6>와 <녹취문 7>를 통해 기존 주민은 반 활동을 납읍리의 전통적인 관습적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납읍리 귀농·귀촌자들은 반 활동이 마을 자체의 활동이 아닌 자신들이 자체

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반 활동에 대한 인식차이를 보여준다.

<녹취문 6>

우리 마을에서 그... 1반에서 19반까지 원래 납읍리 민들이 그 전부터 내려온 대로 구성되어있고.. 그 뒤에 20반, 21반, 22반은 새로 그. 다가구주택, 효도마을, 금산학교마을 그렇게 해서 반이 부여가 되어있죠. 그 외에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곳하고 가까운 곳으로 그렇게 이제 반이 부여가 돼요. 그 래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 마을에 풀베기라던가, 주변 정화, 환경 운동까지 할 수 있도록 같이 하려고 하고 있죠. 2013. 5. 25. 납읍리 이장, 남,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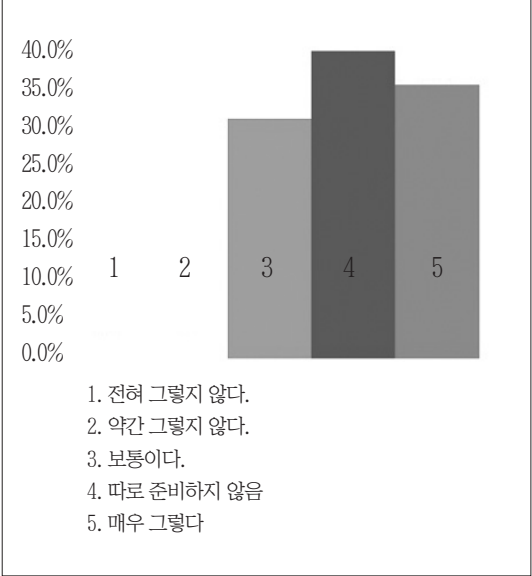
<녹취문 7>

이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을 하는 것은 다 같이 주변 청소하거나 그 청소는 거의 우리 사는 금산학교 마을 그 주변 환경 정화를 하고 있어요. 뭐 마을에서는 원래 있던 반에다가 붙여서 그렇게 보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엔 마을 자체의 그거라기보다는 단순히 여기 그러니까 금산학교마을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죠.

2013. 11. 25. 금산학교마을 거주민, 남, 45세.

2) 지속적 참여 의사

<표 14> 마을단위활동 참여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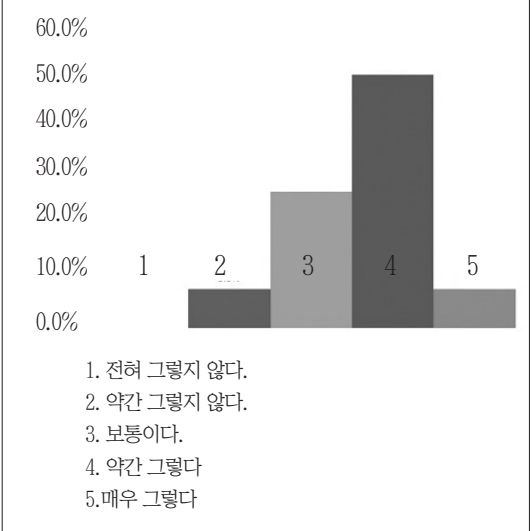


마을조직체를 통하여 마을단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앞으로도 마을 단위 활동에 참여를 할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를 합하여 70.8%에 달했으며,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는 없었다. 현재 마을단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귀농·귀촌자들은 앞으로도 마을단위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마을단위활동 참여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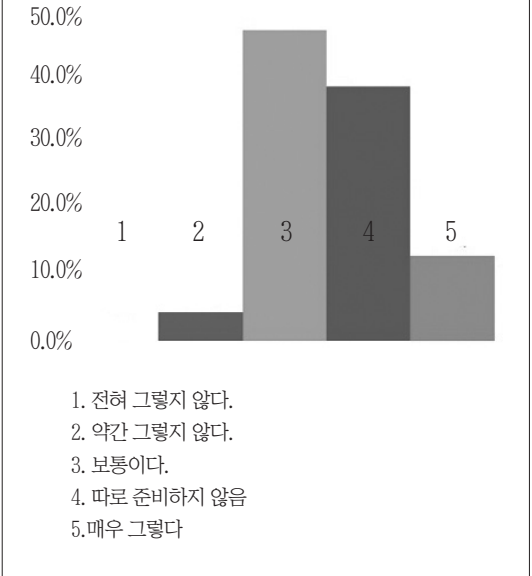
마을단위활동에 참가한 43.6%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마을단위활동이 주민들과의 교류와 주민들 간의 친밀감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표 15> 마을단위활동 교류 정도



마을단위활동의 참가를 통하여 교류가 활발해졌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활발하다'와 '활발하다'로 응답한 비율이 62.5%로 귀농·귀촌자들은 마을단위의 활동을 통하여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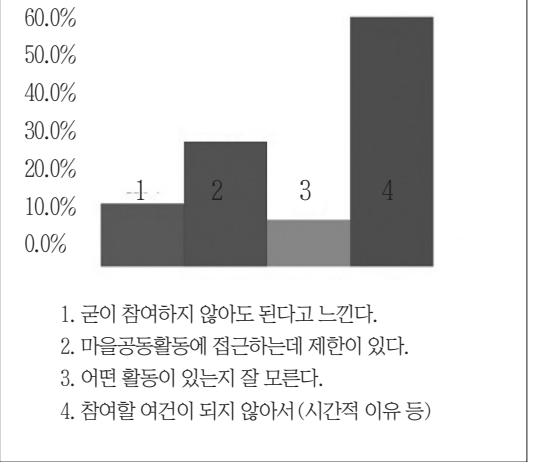
<표 16> 마을단위활동 통한 친밀도 형성



마을단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귀농·귀촌자 중 마

을단위활동의 참여를 통한 친밀도 형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50%의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에 응답하여 마을단위활동의 참여가 친밀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7> 마을활동 불참 이유



마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56.4%를 대상으로 참여하지 않는 요인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성별, 나이, 출신지 등의 요인으로 인해 마을단위활동 참여에 제한을 받는 응답자는 25.8%이고, 응답자 중 51.6%는 시간적 여유 부족 등의 이유로 참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응답자 중 12.9%는 마을활동에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고 있고 나머지 9.7%는 마을에서 어떠한 활동들이 있는지를 몰라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Ⅳ. 결론

최근 귀농·귀촌이 늘어나면서 농촌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혼재되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귀농·귀촌자들이 경험하는 중요한 애로사항 중 하나로서 '지역 사회에 동화되기 어렵다'는 점이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현상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런데 귀농·귀촌 정책은 경제적 유인책이 중심이 되고 있어, 귀농·귀촌자와 기존 마을 주민과의 통합을 이끌어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납읍리 귀농·귀촌자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의 측면에서 농촌 사회에서의 적응 실태를 분석하였다.

<표 2>의 분석틀을 토대로 질문지법을 활용한 결과 납읍리 귀농·귀촌자들의 농촌 커뮤니티 적응 실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귀촌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대부분(85.7%)은 도시 지역에서 납읍리로 이주하였으며, 이주 계기로는 58.1%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를 선택하여 '학교 살리기 운동'을 통하여 나타난 학부모들의 유입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25.5%)', '인터넷 사이트 방문(21.8%)'을 통하여 정착 정보를 얻었다.

둘째, '마을주민과의 관계'로 귀농·귀촌자들은 마을 주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고자 한다. 그리고 대다수가 마을 주민과의 관계에 만족하는데, 마을단위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자의 경우 마을 주민과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마을 내 조직적 참여에 대해 살펴보면 조사대상 중 마을단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이 56.4%로 나타났다. 이들은 마을단위활동에서 특히 반 활동, 학부모회 등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앞으로도 단위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단위활동을 통한 교류정도과 친밀도가 증가한다는 물음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마을단위활동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이주민과 마을 주민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친밀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마을단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귀농·귀촌자들은 마을 단위활동에 참여 여건과 접근성의 제한 등을 불참요인으로 응답하였다.

심층면접의 결과 이주준비과정에서 접하는 정보들이 부정확하거나 과장되어진 정보들로 인하여 혼란을 겪는 귀농·귀촌자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정착지에 대한 문화나 주민 생활에 대한 정보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정보에 치우쳐있어 정착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귀농·귀촌자와 원 주민과의 생활 패턴과 문화의 차이로 인한 이해 부족은 정착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질문지법을 통해 살펴본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귀농·귀촌자들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심층면접에서는 일부 커뮤니티 적응 실패 사례가 발견되었다. 커뮤니티 적응 실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농업연구원에서 제시한 후견인제도를 활성화하거나,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귀농·귀촌자와 원 주민 간의 동업 체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현재 납읍리 '금산학교마을 자치회'와 같이 귀농·귀촌자들과 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마을단위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귀농·귀촌자와 원 주민의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

※가작 논문과 장려 논문은 인터넷으로 제공됩니다. 제주대미디어(<http://news.jejuu.ac.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심사평

지역사회 관심과 창의적인 시도가 필요

2013년 제33회 백록학술상 현상공모에 응모한 논문은 총 4편이다.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이면서 예년만 못해 아쉬움이 크다. 게다가 이 중 3편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 과의 마을조사 결과물을 논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응모한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학부 수준에서의 논문은 지역사회 이슈에 대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 결과를 이론적으로 정리하여 논문 형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논문들은 아직 본격적인 논문작성법을 훈련받지 못한 학부 수준에서 나름의 창의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풀어나갔다는 점에서 그 동안의 노력과 고민에 대해 칭찬할 만하다.

'애월항 LNG기지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결정과정'이 가장 돋보였다. 이 연구는 애월항 LNG 기지를 사례를 통해 애월항 LNG기지 입지선정 과정을 민주성인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지표들을 토대로 분석하고자 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애월리 주민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몇 가지 객관적 지표들을 가지고 주민 특히 마을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논문에서 서론은 문제제기부터 연구의 목적, 방법 등을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론적 고찰이 없을 경우, 선행연구나 타 지역 사례 등을 소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결론에서 이 논문은 인터뷰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요약만을 나열하여, 조사 결과에 근거한 구체적 제안이나 결론을 강조하였으면 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납읍리 귀농·귀촌자의 마을 커뮤니티 적응 실태' 연구는 납읍리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공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납읍리 귀농·귀촌자의 마을 커뮤니티

적응과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논문이다. 주제 선정에 있어 참신성과 창의성이 돋보인다. 이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나 타 지역 사례 등을 소개하였으면 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지역의 사회적 자본분석-한림읍 월령리 '마을만들기' 사업을 대상으로-' 논문 역시 주제 선정과 마을조사 방법이 매우 바람직했다. 그러나 마을 만들기 사업과 사회적 자본에 관한 상관관계의 규명 없이 마을 만들기 사업 현황만을 나열하였고, 사회적 자본 측정에 관한 논의 없이 단순 항목만을 측정하여 의미 없이 제시하였고,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목적과 결론이 불일치하거나 결론 내용이 본문의 흐름에서 다소 돌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이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사회의 학교내 집단따돌림: 의도적 접근 방법을 통한 방관자와 죄수의 딜레마' 연구는 주제 선정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됐으며, 무엇보다 학부 2학년 수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논문 형식으로 엮어보려는 노력이 가상해 보였다. 그러나 아직 논문작성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교과서 수준의 사실만을 나열하여 논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핵심소

들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다시 강조하거나 대학시절의 논문은 그 '시도'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 논문작성을 위해 고민하고, 자료를 찾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을 분들을 만나 말씀을 듣는 이런 노력들이 대학 졸업 이후 인생을 살아가는 기틀진 자양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이런 시도들이 대학 전체에 더욱 확산됐으면 좋겠다.

<심사위원>

진 관 훈 (제주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장)

김 동 윤 (국어국문학과 교수·본지 주간)

가작 소감 '납읍리 귀농·귀촌자의 마을 커뮤니티 적응 실태'

이주민 문제 엿볼 수 있는 값진 경험

제주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이주민들이 유입되며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이주민이 한 마을의 구성원으로 정착을 준비하고, 실제로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마을 커뮤니티 적응에 관한 연구를 해보고자 이 논문을 쓰게 됐다.

조사 지역과 주제를 정하고 문헌 조사와 여러 차례의 현지 조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가지고 논문을 작성하면서 여러 차례 어려움도 겪기는 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 덕에 끝을 맺을 수 있었다.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끝까지 함께 노력한 팀원들과 언제나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전공 교수님들,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조사와 면접에 흔쾌히 협조해주신 납읍리 주민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처음 쓴 논문을 제출하니 힘들었던 과정이 끝



이 유 미

윤 지 희

김 세 훈

나 후련하면서도 좀 더 노력을 했더라면, 시간이 더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논문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은 저와 저희 팀원들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고, 그 동안의 노력이 값진 결과로 돌아오게 되어 굉장히 기쁘다. 다소 미숙한 글임에도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도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도록 노력하라는 제언으로 알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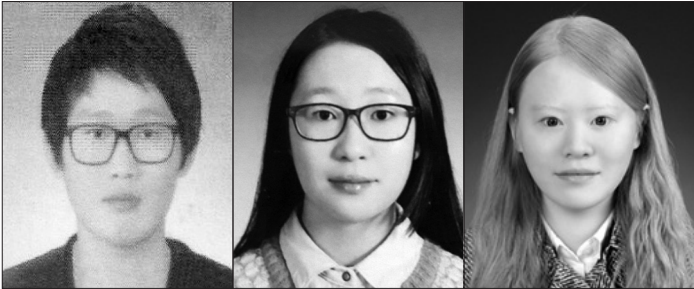
가작 소감 '애월항 LNG기지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결정과정'

완성도 높은 논문 위해 더욱 정진

2009년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 학부생으로 입학하면서 사회조사라는 것을 겪게 되고 내가 사회이슈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게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3학년이 되어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할 기회가 생기게 되어 기쁘기도 하였지만 부담감도 있었다. 다행히도 앞에서 도와주었던 학우들 덕에 순조롭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고 가작에 당선되었기에 학우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민주주의는 그 단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듯이 다수의 지배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다수의 지배가 중심이 되려면 다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의견 또한 중요하다. 즉 다수자의 의견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지만 소수자의 권리 또한 필수적인 요소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애월항 LNG기지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연구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논문이



강 승 호

장 윤 영

강 솔 이

완성되기는 하였지만 나를 비롯한 학우들의 능력이 실속 있는 논문을 만들기에는 시간도 능력도 모자라다. 따라서 결과물 자체도 완성도가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만약 나중에 이러한 주제로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고 싶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사회교육과 한석지 교수님, 염미경 교수님, 정진현 교수님, 김일방 교수님, 송형일 조교선생님, 그리고 곁에서 끝까지 도와준 학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2014년은 신뢰와 소통이 중심되는 학문공동체 되자

좌담 '2013년 결산, 2014 제주대'

제주대신문은 지난 12월 24일 2013년 제주대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2014년을 맞이하며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에는 △이주섭(교육대학 교학처장) 초등국어교육전공 교수 △고원복 재정과 경리팀장 △강호진(법학과 91학번·1997년 총학생회장)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실장 △고미라(언론홍보학과 3) 학생이 참석했다.

대학의 주요사건은 9대 총장 선정

고원복 2013년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앞으로 4년간 우리 대학교를 이끌어 가게 될 제9대 총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일이었다고 본다. 총장직선제를 개선한 제도 하에서 처음 실시된 총장 선정 과정이었기 때문에 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는 어느 사안보다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진행했다고 본다.

이주섭 이번 9대 총장 선거는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넘어가는 커다란 변화의 과정이었다. 간선제로의 변화가 내부로부터의 자발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어서 만족스럽지는 않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성원들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자 했고, 구성원들이 간선제 찬성으로 뜻을 모았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강호진 대학 구성원들이 직접 선출하던 것에서 '간선제'로의 제도개선이 아쉽다. 앞으로는 선정제도가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고미라 학생 9대 총장선정은 제도개선, 실행 과정에서 적지않은 갈등도 불러왔다. 따라서 앞으로 차기 총장이 갈등을 잘 봉합해 등록금문제 등 대학 구성원의 문제에 있어, 경험이 있는 만큼 슬기롭게 잘 해결해나갈 것이라 바라다.

취업을 등 대학평가지표 상승 국책사업 유치 등의 성과 주목

이주섭 2013년에는 대학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준 경사도 많았다.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LINC사업)에서 우리대학이 인력양성 부문 전국 최우수 대학 평가를 받았다. 불과 1년전 사업선정 탈락위기에 처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한 취업을 또한 전국 지역거점국립대학 2위, 국립대학 6위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희망을 갖게 됐다.

GTU(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 사업 선정도 또 하나의 쾌거였다. 이번 사업선정



지난 12월 24일 제주대신문 편집국에서 2013년을 성찰하며 2014년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기 위해 좌담회를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고미라(언론홍보학과 3) 학생,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실장, 이주섭 초등국어교육전공 교수, 고원복 경리팀장.

으로 제주대-제주교대 통합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사업선정을 통해 대학이 조화로운 통합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고원복 우리 대학교의 LINC사업 최우수 평가가 그만큼 의의가 있는 것은 열악한 제주지역의 산업환경을 극복하고 중소기업과 소통의 장을 활성화시켜 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대에 직접 기여했다는 점이다. 기업밀착형 체제 개선 등을 통해 창의적인 산학협력 스타일을 만들어 이룩해 낸 성과는 중앙 일간지 등에서 기획 특집으로 실리는 등 많은 이들에게 우리 대학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고미라 교육역량강화사업, LINC사업 등으로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 그러한 기회가 학생들에게 많은 자신감을 불어넣게 했다.

앞으로 대학에서 말산업, 제주어 등 제주만의 특화된 연구와 사업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기여했으면 한다.

대학생 사회참여도 돋보였던 한 해

강호진 최근 몇 년간 지역사회에서는 "제주대 학생들이 보수화되고 사회에 관심이 없다"고 푸념해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학생들이 모여 제주지역 청년들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실태조사, 청년 가계부 조사 기자회견 등을 벌였다. 또한 제주대 학생들이 '안녕들 하십니까' 자보를 붙이는 등 사문제에 대해 관심과 참여가 돋보였다.

이주섭 '안녕들 하십니까' 현상은 신뢰할 수 없는 불안한 정치, 민주주의의 훼손, 1대 99의 불안한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 있는 불안한 실존의 자기고백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야기한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는 점은 희망을 갖게 하

는 대목이다.

고미라 그렇다. 고려대 주현우씨를 시작으로 전국대학으로 퍼져나간 '안녕들 하십니까' 자보에 우리대학 학생들이 가담한 것은 올해 빼놓을 수 없는 일 중 하나이다. 자보를 보면서 자신의 소신을 용기 있게 표현했다고 본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에 분위기에 휩쓸려 너도나도 제대로 된 고민 없이 총동적으로 가담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든다. 학생들이 최근 철도 민영화 등 전국적인 사안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제주사회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해군기지 건설 문제 등의 제주지역에도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더 좋은 학문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고미라 학생들이 대학의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유익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를 잘 모른다. 학생들이 무관심한 탓도 있겠다. 학생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참신한 홍보방법 고민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주섭 대학에 유익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취업을 제고 등 대학평가지표 향상에 기여했다. 대학 구성원들의 노력이 쌓이고 쌓여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앞으로 대학생활 초기에 삶의 계획, 대학생활 계획 등을 짜서 대학에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은지 자기주도적으로 고민해보게 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

고원복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국책사업 유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교육 특성화 사업은 2014년에 우리 대학이 사활을 걸고 유치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지원분야별로 학과간에 유기적 연대 등을 통해 좋은 성과를 만들었으면 한다.

강호진 대학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행사, 프로그램 등이 더욱 많았으면 좋겠다. 제주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다수는 제주대 출신들이다. 또 대학이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더욱 더 긴밀해져야 한다.

제주대, 이런 대학을 꿈꾼다

고미라 우리대학이 열정이 가득한 대학이 됐으면 한다. 열정을 갖고 하다보면 높은 취업의 문턱을 넘는 등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생기 넘치는 대학이 되기를 바란다.

고원복 앞으로 제주대가 다른 거점국립대학과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학, 도민의 사랑을 받는 대학으로서 지역사회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대학이 외향적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고 도전해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주섭 우리 대학도 방문객들이 우리 캠퍼스에 찾아올 수 있도록 건물, 나무, 돌, 조형물, 그리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 등에 의미를 담으면 좋겠다. 방문하고 싶은 캠퍼스를 만드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사람과 학문을 중시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또 휴머니즘 넘치는 대학이 되길 바란다.

강호진 서로 소통하고 활기가 넘치는 대학이 되길 바란다. 소통이 우리 사회의 화두인 만큼 사회에 활력을 주는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대학발전,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김명지 기자

제주대 가족이 바라는 2014년 우리대학

외국인 학생 아라잉마(미얀마·경제학과 1)

정시 지원생 강수이(제주여고 졸업 예정)

외국인 학생에 관심을

“대학생활 적응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양강의가 큰 도움이 됐다. 유학생들은 전공수업이나 다른 교양수업이 한국어로만 진행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강의가 보다 많이 개설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학생들과 한국인 학생들의 교류 기회가 많지 않다. 서로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도록 다양한 행사 등이 마련되길 바란다.”



아낌없는 조언 기대

“작은 사회라 일컫는 대학교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 신입생들에게 대학은 너무나 생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렘이 가득한 곳이다. 선배들이 학점관리 비법이나 대학생활에 대해 조언을 해주셨으면 한다.

또한 수업 시간표를 나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수강 신청에 대해 학교 측에서 쉽게 설명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직원 박은민(여대생커리어센터 연구원)

동문 박상현(해양산업공학부 07학번)

센터 프로그램 활용해야

“여대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만의 '브랜드' 만들기 위해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알차게 보냈으면 한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학생들의 비전 설정과 커리어개발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조력하고 연구하고 있다.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여대생들이 꿈을 이뤄내길 바란다.”



다양한 실습강좌 필요

“학교를 다닐 때 실습이 가장 큰 도움이 됐다. 학과 학생들과의 친목과 더불어 진로에 대한 탐색 등 여러모로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실습비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순 없었으나 그만큼 의미가 컸다.

졸업생 입장에서 되돌아봤을 때 학교에서 좀 더 실습을 지원해주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부모 이지영(55·도남동)

학생 현명철(초등영어교육전공 3)

제주의 자랑으로 남아야

“제주대의 장학금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어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등록금이 저렴하다는 것 외에도 교육 콘텐츠나 교수진 등이 제주대의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학교가 발전했으면 좋겠다.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를 믿고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제주대가 제주의 자랑이자 제주인의 긍지가 되는 명문대로 거듭나길 바란다.”



사라캠퍼스도 관심을

“교육대학은 아직도 문제점이 많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학내문제나 캠퍼스 내 시설 문제 등 학생들의 불만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통합은 이뤄졌지만 실질적으로 교육대학 학생들은 아직 통합에 의한 혜택을 덜 받고 있는 것 같다.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캠퍼스 간 조화로운 발전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정리=강수빈 기자

Pure Enjoyment!

1950m 신비로운 한라산의 숨결이 느껴지는 깊은 맛
지금 느껴보세요!

제주삼다수와 제주산 맥주보리가 어우러진
전통 프리미엄 맥주 제스피

www.jpdc.co.kr

제주삼다수 hallasu 水 Jespi 삼다수감굴 위도 제주 워터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velopment Corp.

제스피 영업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6길 44번지 1층 (구 신제주종합시장)
문의 : 064) 780 - 3792, 713 - 7744

세계7대자연경관,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제주